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주민참여를 통한 도서지역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 진도군 가사도 돌목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earch for Value and Utilization Plan
for Regional Asset in Island Area through
Neighborhood Participation

- Focusing on Dolmok Village in Kasa Island, Jindo-gun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진

주민참여를 통한 도서지역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 진도군 가사도(加沙島) 돌목마을을 중심으로

김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성종상

한국의 도서지역은 지리적 불리한 환경적인 이유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제도적인 혜택에 후순위 대상이었다. 도서지역은 육지로부터 거리를 두고 수역으로부터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¹⁾.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지역 낙후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유희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나 새롭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은 마을과 주민들이 노화되는 것과 비례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은 도서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자산은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그 곳의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다²⁾. 즉, 주민들만의 참여가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1) 오선동, 전의천 (2001) 가사도의 산업구조와 주민소득 제고방안

2) 김연진 (2009).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185-207

위한 필수요소로 작용한다³⁾.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도서지역 지역자산을 주민참여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서 주민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 돌목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개발사업 현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산 활용방법을 도출한다. 지역자산 파악에 핵심주체인 돌목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유형화한다. 유형화된 지역자산은 지역자산 평가도를 통해 마을의 대표자산을 선별하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주민워크숍 통해 이미지맵을 제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자산들을 발굴하고, 대표자산을 선별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지역 재생사업을 주민들의 입장과 현실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어 : 지역재생, 섬마을, 유희공간, 주민워크숍, 역사문화자원
■ 학번 : 2015-24841

3) Mascia, M. B. (2003). "The human dimension of coral reef marine protected areas: recent social science resear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onservation biology* 17(2): 630-632.

목 차

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용어정의

1절. 한국도시의 생활환경과 지역자산	7
1. 도서지역 지역자산이 갖는 가치	7
2. 지역자산의 개념 및 정의	7
2절. 지역재생차원에서의 주민참여	13
3절.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15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의 활용 사례	15
2. 종합 분석	20

제 3장 대상지 이해

1절. 대상지 특징	20
1. 돌목마을 개요 및 일반현황	21
2. 돌목마을의 인문·사회적 환경	25
2절. 지역자산 분석의 틀 및 방법	29
1. 지역자산 분석의 틀	29

2. 지역자산 분석 방법	32
3.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활용가치 및 의미	34

제 4장 대상지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

1절. 돌목마을 지역자산 발굴	36
1.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정의 및 분류	36
2. 돌목마을의 유형자산	37
3. 돌목마을의 무형자산	46
4.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종합	51
5. 돌목마을 지역자산 특성 분석	54
2절.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	62
1.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	62
2. 지역자산 활용방향 설정	70
3. 주민워크숍을 통한 활용방안 의견 수립	74
3절. 종합계획	85
1. 마스터플랜	85
2. 지역자산 운영관리 방안	90
4절. 소결	94

제 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02
2절. 연구의 한계	105

[참고문헌]	106
[부 록]	112
[ABSTRACT]	116

[표 목차]

[표 1] 도서지역 관련 정책 현황	4
[표 2] 도서지역 관련 사업 현황	4
[표 3] 지역자산 및 유사용어 개념 정의	9
[표 4] 지역자산 유형	11
[표 5] 장소자산의 분류	12
[표 6] 주민참여 이미지맵 제작 과정	14
[표 7] 취약계층 지원주택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 과정	15
[표 8]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사례분석 표	20
[표 9] 돌목마을 인구 도표	24
[표 10] 가사도 전통문화 요약표	27
[표 11] 돌목마을 지역자산 유형	30
[표 12] 돌목마을 지역자산 표	38
[표 13]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분류	52
[표 14] 돌목마을 지역자산 특성 표	56
[표 15] 설문 대상자 정보	63
[표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64
[표 17] 지역자산 평가표	65
[표 18] 돌목마을 대표이미지 분석	68
[표 19] 주민특성에 따른 마을 미래 발전방향	69
[표 20] 주민특성에 따른 마을 발전사업 참여의사도	70
[표 21] 주민워크숍 진행과정	77
[표 22] 조별 마을이미지맵 분석내용	78
[표 23]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	84
[표 24] 돌목마을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 표	102

[그림 목차]

[그림 1] 가사도 돌목마을 위치	6
[그림 2] (좌)동고지마을지도, (우)마을스토리 팻말	16
[그림 3] (좌)출렁다리 (우)복합낚시공원	17
[그림 4] (좌)메주 가공 공장, (우)마을 박물관	18
[그림 5] 영산도 이미지	19
[그림 6] 대상지 상세지도	21
[그림 7]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사도	22
[그림 8] 가사도의 인구변화	23
[그림 9] 대상지 등고도	25
[그림 10]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	25
[그림 11] 지역자산평가방법 예시	32
[그림 12] 지역자산 발굴 과정	34
[그림 13]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가치재발견 개념도	36
[그림 14] 톳 수확과정 사진	47
[그림 15] 돌목마을 주변 농지	48
[그림 16] 돌목마을 호 가입 과정	50
[그림 17] 주민 동행인터뷰 지역자산 발굴 과정	52
[그림 18] 돌목마을 지역자산 분포도	54
[그림 19] 지역자산 평가표	66
[그림 20] 돌목마을 대표지역자산 분포도	67
[그림 21] 지역자산 기본 활용방향 설정 과정	71
[그림 22] 돌목마을 이미지맵	75
[그림 23] A조 지역자산 활용 발표 사진	79
[그림 24] B조 지역자산 활용 발표 사진	81
[그림 25] 주민워크숍 의견수렴 과정 사진	83
[그림 26] 마스터플랜	87
[그림 27] 동선 계획도	88
[그림 28] 구역별 계획도	89
[그림 29] 둘레길 코스 계획도	90

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도서지역 고령화와 비례한 지역 침체 위기

우리나라에 위치한 3,000여 개의 도서지역은 불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취약하다 보니 많은 인구가 유출되며 섬마을 인구가 감소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 사업 후 시설물의 방치, 유지관리의 부재 등으로 도서지역 고유의 지역자산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타 농, 산촌 지역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2)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도서지역은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시대의 경제발전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않으면서,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 역사는 비교적 잘 보전되어 오고 있다. 고립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가, 최근 들어 도서지역의 잠재가치가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고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은 국가적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⁴⁾. 따라서 도서지역의 관광개발은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국가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남해안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한 섬과 바다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해양관광 명소로 지정하여 특화할 계획 중에 있다⁵⁾. 그중 전국의 60%인 약 20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2008년 민선 4기를 기점으로 초광역경제권개발, 신활력지역사업, 도서개발 촉진법 등 도서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2)에서 해양섬 자원 휴양·여가지대 기반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여가 휴양지로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밝혔다.

3) 신 관광산업에만 치중되어 도서지역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 소실 및 방치

4)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5) 관광기본계획 (2011) 문화체육관광부

도시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여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 중이나, 탐방로, 자전거길, 전망대 조성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개발에 치중된 나머지, 기존의 지역자산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지역자산 자체의 재활용 등 소극적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⁶⁾. 또한 무분별한 관광 개발에 의해 오히려 도시지역 내 고유의 생태, 문화 자원으로 활용 잠재성이 있는 지역자산들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희공간이 생겨나고 있는데, 도시지역 내에 발생한 유희공간은 도시지역의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⁷⁾.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도시지역의 이미지 저하, 관광객 감소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지역 사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도시지역 지역자산의 가치발견의 필요성

최근 지역자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 재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자산의 활용가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고립된 지역적 특성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발생한 도시화 같은 급속한 변화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고유의 공간적,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보존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면서 도시지역은 인구유출 현상으로 유희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령화와 어업의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 현상은 가속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도시지역만의 가치를 담아왔던 기존의 문화, 역사 공간들은 방치되거나 소실되었다. 도시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 69.7보다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 도시지역의 경우, 고령화 지수는 234.3으로 전국 평균보다 3.3배 높게 나타났다⁸⁾. 도시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소득원이 현저히 미비하므로 도시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⁹⁾. 최근 정부에서는 도서개발 촉진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도시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6) 김은자, 농촌마을 유효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촌관광학회 p.33-57, 2015

7) 신선미, 도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 한국습지학회 p.675-685, 2012

8) 행정자치부 2011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새로운 관광인프라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기존의 지역자산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인구변화에 의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지역의 지역자산들의 가치를 재 모색하여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지역 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도서지역 관련 정책 현황

도서지역 관련 정책	내용
도서개발촉진법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도서지역 주민 생활 환경개선
도서지역 생태계보전 특별법	뛰어난 자연경관, 우리나라 동, 식물종 서식처, 자연림 지역 등 학술적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를 지정하여 보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목적

[표 2] 도서지역 관련 사업 현황

도서지역 관련 정책	내용
초광역경제권개발	남해안선 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등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신성장축 개발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관광자원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 및 관광활성화 도모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토속음식 상품화, 섬 문화 콘텐츠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및 섬에 자생하는 꽃, 나무, 군락지 정비
생태섬 사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탐방로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조성,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도서지역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자산이 방치 및 소실되어가고 있다. 인구유출로 도서지역은 점점 경제력을 잃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진도군은 정부 3.0 군민 디자인단 자체 과제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선정하여¹⁰⁾ 도서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사업들은 섬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경제력을 살리기 위한 관광에 집중되어 왔다. 복지와 관광 차원에서 지역자산은 섬주민의 안전, 보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공간이다.

지역자산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¹¹⁾. 즉, 도서지역 내 지역자산이 가진 의미는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정체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현재 도서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연을 보전하는 동시에 섬 주민들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내 지역자산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지역자산은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그곳의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다. 즉, 주민들만의 참여가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도서지역 지역자산을 주민참여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한국일보, “인구늘리기” 항목 (<http://www.hankookilbo.com/v/4315a2c3f8ed4c9c9ba920d230eebce7>)

11) 김연진 (2009).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185-207

2. 연구의 방법

연구자는 2016년 6월 19일 돌목마을 대표와 전화인터뷰, 2016년 7월 3일부터 3일간 사전답사를 통해 가사도 및 대상지의 이해와 주민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가 답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 가사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개발사업 현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도서지역 지역자산 활용방안 분석한다. 또한 대상지 지역자산 현황 파악에 핵심주체인 돌목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민워크숍을 통해 맵핑, 도면화 등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대상지의 지역자산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용어정의

1절. 한국도시의 생활환경과 지역자산

1. 도서지역 지역자산이 갖는 가치

한국의 도서지역은 지리적 불리한 환경적인 이유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제도적인 혜택에 후순위 대상이었다. 도서지역은 육지로부터 거리를 두고 수역으로부터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¹³⁾. 이러한 이유로 지역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나, 뚜렷한 대책이나 새롭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은 마을과 주민들이 노화되는 것과 비례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만들어오고 형성해온 지역자산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은 도서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지역자산의 개념 정의

1) 지역자산의 의미

현재까지 지역자산의 개념 및 정의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이왕건 외 4명(2011)과 임순정 외 2명(2014)로 두 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⁴⁾. 그 이유는 지역자산의 개념은 지역자원, 지역특성, 장소자산, 공동체자산 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자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사용어의 이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자산의 의미와 유사용어의 개념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13) 오선동, 전의천 (2001) 가사도의 산업구조와 주민소득 제고방안

14) 이선영 (2016).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표 3] 지역자산 및 유사용어 개념 정의

용어	개념 정의	연구자
지역자산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 ¹⁵⁾	이왕건 외 (2011)
	지역의 긍정적 요소, 구성원들의 재능 등 경제적 가치로 활용 가능한 자산	임순정 외 (2014)
	지역 특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역량으로 지역 문제해결과 발전에 활용 할 수 있는 자산	Mayer (1994)
	지역 내 주민들이 구성된 단체와 커뮤니티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써 세대에 걸쳐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잠재자원	Green and Haines (2012)
역사문화자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변천과 기록 중 자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	배기택 (2012)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합쳐진 복합적 자원으로써, 문화재 등 역사적 요소와 환경, 무형요소를 포함한 역사적 자원	노기창 (2010)
지역문화자원	지역과 문화의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경험과 가치에 따라 정립되는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 되고, 보존, 발굴, 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	김은성 (2013)
장소자산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칭하는 장소 자산	장신영 (2008)

15) 이왕건 외 4명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40p.

2) 지역자산의 유형 및 구성요소

지역자산의 경우 대상지에 따라 공간적 범위, 특성, 자산 선정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자산에 대한 명확한 유형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¹⁶⁾. 따라서 유형화의 이해를 위해 지역자산과 유사개념인 장소자산과 문화자산의 구성요소를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선행연구는 이왕건 외(2011)의 선행연구와, 백선희 (2004)의 지역자산 유형 분류를 토대로 한다. 이왕건 외(2011)는 지역자산의 유형을 문화적자산, 사회적자산, 경제적자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백선희 (2004)는 장소자산을 물리적·환경적요소, 인적·문화적요소, 정서적·상징적요소, 상대적요소로 분류하였다. 한 가지 특징은 지역자산을 지역의 잠재력으로 보고 장소자산의 유형 중 하나로 상대적요소를 분류하고, 상대적요소는 위치적자산, 잠재적자산, 상대가능성자산으로 세분화하였다는 것이다. 백선희 (2004)는 잠재적 자원을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인 요소, 즉 장소의 매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하였을 때 매력적으로 판매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다¹⁷⁾.

이왕건 외(2011)는 지역자산의 유형을 문화적자산, 사회적자산, 경제적자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역자산의 분류는 다음 [표4]와 같다.

16) 임순정 외. (2014).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자산 측정도구 비교 연구.

17) 백선희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표 4] 이왕건 외(2012)의 지역자산 유형

구분		자산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적 자산	장소적 자산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시장, 상권의 형성정도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환경적 자산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쾌적성	-어메니티 자원의 보유 정도 -자연경관(강·산·바다·평야 등) -환경의 질적 수준(대기·수질·소음 등) -특이한 지형·지질·동식물·기후 등
구조적 자산	공간적 자산	지역의 공간 구조적 특징	-건축물의 구성·배치 등 -고유하고 독특한 가로경관·풍경 등
	시설적 자산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기반시설(건물·상하수도·도로·항만 등) -토지이용(주거·공업·상업 등) -용도별 지역·지구지정 여부 -주거여건 등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유 및 활용성	-문화재·문화시설(유물·유적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역사적 장소·전설 등) -근대 유흥산업시설 등
	관광적 자산	지역 내 예술·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성	-축제·이벤트, 예술작품 등 -관광명소, 관광시설·관광지구 등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정도 및 잠재력	-지역공동체, 지역리더, 지역자생조직 등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 (규범, 신뢰, 참여, 리더, 리더쉽, 협력) -구성원들의 행위·생활상 등
	이미지 자산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지역 정체성(문화적 다양성·개방성 등) -지역 상징성(매력·브랜드·인지도·호감도 등)
경제적 자산	기업체 자산	지역 내 기업활동 기반 및 정도	-기업의 규모·경쟁력·일자리·기술개발·조직 문화 -정부의 지원정도(인적·재정적 지원 등) -기업의 지역내 융화 정도 등
	노동력 자산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정도 및 잠재력	-지역내 노동력·노동시장·고용 프로그램 -개인·집단의 경험·지식·교육정도 등

백선희 (2004)는 장소자산을 물리적·환경적요소, 인적·문화적요소, 정서적·상징적요소, 상대적요소로 분류하였으며, 한 가지 특징으로는 상대적요소를 위치적자산, 잠재적자산, 상대가능성자산으로 세분화하여, 장소의 매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하였을 때 매력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 까지도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지역자산의 분류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백선희 (2004)의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의 요소	장소자산 분류	구체적 예
물리적·환경적 요소	물리적자산	도로망, 항구, 건물, 인프라
	환경적자산	지형, 기후, 청정 환경
인적·문화적 요소	사회·문화적자산	문화, 레크리에이션, 역사, 이벤트, 축제
	정치·제도적자산	기업 인센티브, 도시공공서비스
정서적·상징적요소	상징적자산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 정체성
상대적 요소	위치적자산	시장, 상권, 결절지
	잠재적자산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장소 요소 가운데 시대 변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
	상대가능성자산	장소자산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경쟁 장소에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여, 해당 장소에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선발이익이나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소자산

3)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정의

본 연구는 주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에 대한 정의는 이 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인식과 의견이 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돌목마을의 지역 자산의 정의는 지역 특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산으로서,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자원으로 인식하며 세대에 걸쳐 공유하고 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서지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자산들이 존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지역의 지역자산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¹⁸⁾.

18) 이성운 (2015). 섬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2절. 지역재생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커닝햄스(James V. Cunninghams, 1972)는 주민참여를 커뮤니티의 비전문가들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민참여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Marc A. Zimmerman and Julian Rappaport, 1988). 지역주민과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홍연과 이상호(2013)는 지역주민이 정책 및 문제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의해 스스로 거주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파악하여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의 과정은 대상지와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정은정 외(2008)는 광주광역시 남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지구 주민대상으로 이미지 맵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의견도출, 이해강화, 합의도출 유도를 통해 효율성을 검증하였다¹⁹⁾. 이미지맵의 제작과정은 4단계에 나누어 예비조사, 전문가 협의, 주민인터뷰, 지역자산 유형화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미지 맵을 만들었다. 이미지 맵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하기 쉬운 수채화로 만들었다.

[표 6] 정은정 외(2008)의 주민참여 이미지맵 제작 과정

진행과정	분류	진행내용
1차 이미지맵	1단계	마을의 소식지를 통한 예비조사
	2단계	지역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징적 장소를 선별하여 설문조사
	3단계	지형, 기후, 청정 환경
	4단계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장소에 대한 지필조사를 통해 지역의 대표장소, 애착감이 있는 장소, 보존가치가 있는 장소를 분류

19) 정은정 외(2008). 주민워크샵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주민워크샵	워크샵 1부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를 인식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워크샵 2부	이미지맵의 잠재성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인식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주민상호간 의견교류
2차 이미지맵	이미지맵 완성	1차 이미지맵과 주민워크샵을 통해 마을 이미지맵 완성

오아연 외(2016)는 취약계층 지원주택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샵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민 워크샵에 앞서 연구자는 첫 번째로 이장단을 대상으로 예비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토대로 주택의 유형과 공용공간을 단순화 하여 워크샵 참여 주민들의 이해와 명확한 의미전달을 이해를 돕는 사전 작업을 했다. 본 워크샵을 위해 연구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인근 지역주민 16명을 설정하여 거주유형과 유사한 고령자, 단신 및 중장년, 신혼육아, 장애인 계층으로 분류하였다²⁰⁾. 주민 워크샵 방식은 대상자들에게 1)주거복지지원주택의 개념 및 목적, 2)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특성, 3)공용공간의 구성과 기능의 유형화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의견은 각 계층별 합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였다.

[표 7] 오아연 외(2016)의 취약계층 지원주택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샵 과정

진행과정	대상	진행내용
예비워크샵	마을이장단	워크샵 참여 주민들의 이해와 명확한 의미전달을 이해를 돕는 사전 작업을 위해 주택을 유형화 하고 공용공간을 단순화 함
주민워크샵	취약계층 인근 주민	인근 지역주민 16명을 설정하여 거주유형과 유사한 고령자, 단신 및 중장년, 신혼육아, 장애인 계층으로 분류
		주거복지지원주택의 개념 및 목적,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특성, 공용공간의 구성과 기능의 유형화 특성에 대해 소개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특성, 공용공간의 구성과 기능의 유형화 특성에 대한 의견 수립
		각 계층별 합의과정을 통해 의견 정리

20) 오아연 외(2016) 취약계층 지원주택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디자인워크샵 의의

3절.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의 활용 사례

지역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각 사례는 지역자산의 배경, 활용 방법 및 주민참여의 역할 등을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1) 안도 동고지 마을

동고지 마을은 금오도 인근의 안도에 있는 15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한 마을로서 주민들의 노력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마을이었다. 동고지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내용을 집집마다 팻말에 적고, 지역자산이 담긴 동고지 마을지도를 만들었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이야기를 알게 되고, 마을 주민들과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활동이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관광산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광두레도 운영하고 있다.²¹⁾ 이로써 2014년에는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소득기반 구축에 성공하였다.



[그림 2] (좌)동고지마을지도, (우)마을스토리 팻말

(자료: blog.naver.com/pressinfo/220811792756)

21)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bz15diyTravelLeaderList.kto?func_name=view&articleId=89576

2) 전라남도 강진군 가우도

가우도는 사방으로 강진만과 무인도를 조망할 수 있는 단일섬으로 우수한 해양 조망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섬 내부에 후박나무 군락지 및 곰솔 등 상록수 조림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우도의 상록수림은 물고기 떼를 해안으로 유인하는 어부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우도의 특산물인 황가오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낚시체험하기 좋다²²⁾. 섬의 문화적 지역자산으로는 마을주민들이 5월 5일 단오떡을 만드는 단오제와 그네뛰기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섬의 환경·문화적 지역자산이 방치 및 소실되었다. 전라남도는 가우도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조망자원을 활용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가우도를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다. 해양 조망자원의 활용을 위해 ‘가우도 함께해길’과 ‘출렁다리’인 보도교를 조성하였다. 또한 해수면에 복합낚시공원을 개발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하였다. 복합낚시공원은 입장료를 받아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 가우도 주민들은 가우도의 특산품인 황가오리 모양을 닮은 빵인 ‘황가오리’ 빵을 만들어 섬의 특상품으로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올린다.



[그림 3] (좌)출렁다리 (우)복합낚시공원

(자료1: http://www.gaudo.co/bbs/content.php?co_id=sub01_02)

(자료2: http://www.gaudo.co/bbs/content.php?co_id=sub01_03)

22) http://www.gaudo.co/bbs/content.php?co_id=sub01_02

3)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봉천메주익는마을

봉천메주익는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메주를 만드는 ‘봉천메주’가 마을의 대표적인 지역자원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관리 인력의 부재로 지역자원이었던 메주가공시설이 유헴공간과 유헴시설로 전락했다. 메주가공시설과 인근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마을 내 인력들은 메주방이 중단한 시점부터 다른 지역으로 품팔이를 나가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1년 10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주민 출자방식으로 메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²³⁾. 또한 마을 차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장과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등 마을 공동경영체를 조직하고 황토메주방을 재활성화 하였다. 단순한 시설의 재활용이 아닌 마을 전체가 공장운영부터 원료생산, 유통까지 마을이 갖고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농촌소득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



[그림 4] (좌)메주 가공 공장, (우)마을 박물관

(자료1: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814)

(자료2: https://i.ytimg.com/vi/U6_prvxxFy0/maxresdefault.jpg)

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711125225310>

4)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영산도는 멸종위기종인 풍란과 석곡이 자생하는 자연환경이 보존된 섬이다. 과거 양식업 권장정책에 따라 양식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잦은 태풍으로 인한 양식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로 주민소득 감소와 인구유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환경부는 2012년 영산도를 명품마을로 선정하여 영산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영산도 마을재생의 성공요인으로는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섬의 멸종위기종을 보호 및 복원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보호지역 의식 향상에 따른 인식이 개선되었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환경을 유지하였다.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수용인원 제한을 두어 방문객들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섬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효과를 주었다²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영산도 명품마을 복합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스토리텔링 구현, 주민해설사, 자연산 먹거리 판매 등 마을의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그림 5] 영산도 이미지 (자료:
<http://www.yeongsando.co.kr/?sid=11>)

24) 영산도 공식홈페이지 내용 <http://www.yeongsando.co.kr/?sid=26>

2. 종합 분석

각 사례들을 통해 사례별 유형, 활용한 자산, 목적, 과정 등을 분석하여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하였다. 사례분석 내용은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사례분석 표

사례	유형	활용자산	목적	과정	결과
안도 동고지 마을	섬 마을	자연자산 역사자산	노후된 마을 활력 및 재생	주민의 일상 스토리텔링 주제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명품마을 지정 및 관광지 유치	-마을재생 성공 -트레킹코스 조성 -관광객 증가 -생활편의시설 및 마을소득기반 구축
강진군 가우도	섬 마을	자연자산 문화자산	섬마을 재생	가고싶은섬 선정→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낚시공원, 도보교 등 기반시설 조성 → 지역특산물 개발 → 관광객 유치	-마을 특산품 활성화로 마을 이미지 구축 -마을 기반시설 구축 -마을재생 성공
봉천 메주익 는 마을	마을	메주공장	메주가공 시설 운영 및 소득 창출	영농조합법인 설립 → 마을공동 경영체 운영 → 주민출자방식으로 메주 판매 → 메주 사업 확대	-마을 주민 전체가 지역자산 운영 관리 -마을주민 소득 창출
신안군 영산도	섬 마을	자연자산	섬마을 재생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섬 보전의식 향상 → 영산도 명품마을 복합영어조합법인 설립 → 스토리텔링, 주민해설사, 자연산 먹거리 판매로 관광객 유치	-마을재생 성공 -트레킹코스 조성 -먹거리 개발 -자연환경 보전 -마을소득기반 구축

제 3장 대상지 특징 및 분석의 틀 설정

1절. 대상지 특징

1. 돌목마을 개요 및 일반현황

1) 대상지 일반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가사도에 위치한 돌목마을과 주변 반경 1km 이내다. 돌목마을은 가사도의 세 마을(큰마을, 돌목마을, 활목마을) 중 한 마을로 가사도 선착장, 가사도등대, 에너지연구소, 돌목해변과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된 광산 등 풍부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이 밀집되어있어 가사도의 핵심 장소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마을이다. 실제로 가사도 세 마을 중 유일하게 우수한 생태·역사자원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2015년 생태섬 사업이 조성된 바 있다. 주민등록상 돌목마을은 총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으나²⁵⁾, 실 거주자는 17세대 23명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6] 대상지 상세지도

25) 가사출장소 돌목마을 인구추이 2016 9월 자료 기준

2)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사도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는 170여 가구, 290여 명의 인구²⁶⁾와 면적 6.69km², 약 18.1km의 해안선을 포함하고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이다. 가사도는 유일한 뱃길인 진도 쉬미항에서 13km 떨어져 있다. 가사도는 본섬을 포함하여 6개의 유인도와 10개의 무인도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라남도의 264개의 유인도 중 83%가 5km² 이하의 섬인 반면 가사도는 그 외 45개의 섬 중 하나로 기반시설과 인구가 비교적 많은 섬이다. 제도적으로 가사도는 인근의 다도해해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개발에 비교적 자유롭다. 지층은 활성단층이 없어 지진에 안전한 지질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한때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²⁷⁾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에너지 자립 섬, 금광 채굴 사업 등이 진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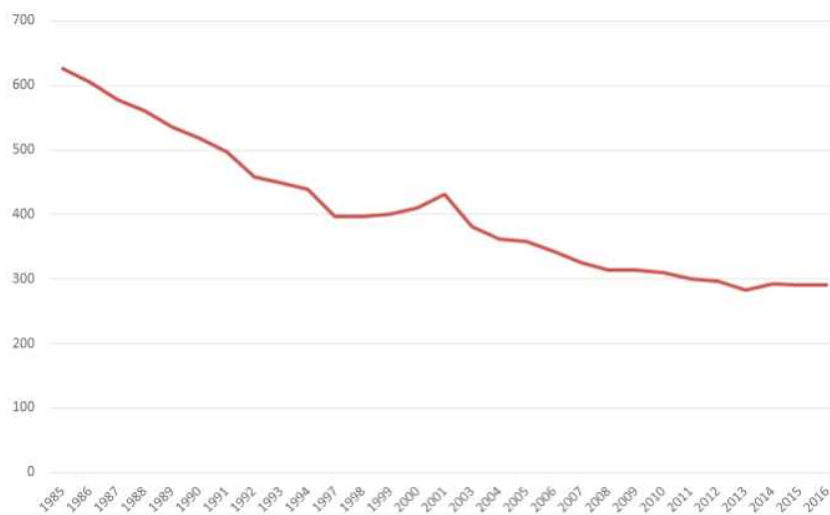
[그림 7]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사도

26) 편집부, [電력질주]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섬 ‘가사도’. 전기저널, p76 2015

27) 문병채, 가사도의 자연 및 인문경관자원에 관한 연구 2001

3) 가사도의 인구변화

가사도의 인구변화는 198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985년도 627명, 2016년에 290명으로 약 30년 동안 54%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섬 마을의 인구감소현상은 복지, 교통, 교육환경 부족 등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요건이 원인이 된다²⁸⁾.



[그림 8] 가사도의 인구변화

28) 가사도의 인구변화 내용 중 19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동신 외(2001)의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 팔경과 관광개발 방향.”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2003년 이후의 자료는 가사출장소 “가사도 인구추이” 자료를 참고하였음. 2016년도 인구는 9월 기준 자료임.

4) 돌목마을의 인구변화

돌목마을의 경우 가사도 전체 인구 변화폭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두 마을 보다 인구감소폭이 적으나,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10월 현장답사 결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51명 중 26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 수 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들의 유학, 타 지역으로의 취업 등이 있다²⁹⁾.

[표 9] 돌목마을 인구 도표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인구 수	64	66	60	55	47	47	53	53	51	52	54	53	5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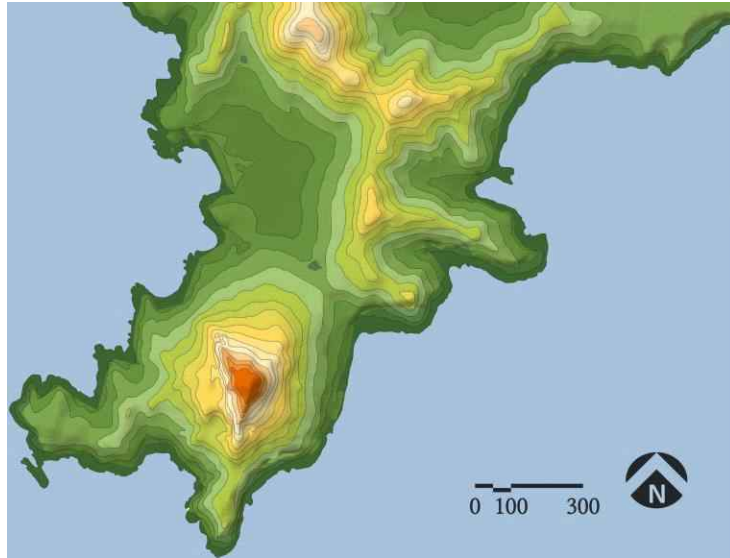
5) 대상지 물리적환경

대상지는 표고 200m 내외의 산악지대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산악지대의 형상을 보면 지세가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트여있다. 때문에 돌목마을 방향으로 바람이 사계절 강하게 분다. 이러한 이유로 해수의 흐름도 영향을 받아 가사등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파고차가 크다³⁰⁾. 서쪽의 경우 파고가 높고 파속이 매우 빠르다. 이러한 해수의 빠른 흐름은 해안지형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돌목해수욕장과 돌목마을 사이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은 포켓비치의 형태로 짧게 발달되어 있다. 대략 고도 50m 이내는 경작지가 주로 조성되어 있고, 최근 행복마을사업으로 한옥들이 자리잡고 있다. 산악지대의 경우 40~50년생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³¹⁾.

29) 김계섭(57), 최정인 주민인터뷰 내용

30) 돌목마을 주민 최정인 인터뷰 참고

31) 가사도(2001) 지역 물리적현황



[그림 9] 대상지 등고도



[그림 10]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

2. 돌목마을의 인문·사회적 환경

1)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

지금의 가사(加沙)도는 본섬과 주변 16개의 섬들이 스님의 옷과 부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과거 가사(袈裟: 승려의 옷)도로 불렸다. 따라서 주변 섬들의 명칭도 주지도, 양덕도, 대소동도 등 불교에 관련된 이름이다³²⁾. 불교에서 유래된 대상지 명칭은 가사도 주민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불교에서는 살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도 내에서도 살생에 관련된 모든 것은 금기시 되어 왔다. 따라서 ‘살생하면 망한다’, ‘어업을 하면 망한다’ 등의 속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 와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는 독특한 섬이다³³⁾.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돌목마을은 섬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돌목마을 24세대 중 어업 7세대, 논 3세대, 밭 전 세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어업은 돌목마을 주민들의 약 29%에 반해 전 세대가 농업에 종사한다.

2) 대상지의 문화적 배경

(1) 마을의식 - 도깨비굿 당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대상지의 생태환경과 지역민들의 삶의 방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도구가 된다.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 주민들은 약 1990년도 까지 당제와 도깨비굿을 시행해왔다³⁵⁾. 모든 부분이 바다에 노출된 도서지역이 만든 물리적 격리감과 태풍, 폭우 등 주민들의 생업을 위협했던 자연재해는 가사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에게 있어서

32) 김동신, 김농오 (2001) 加沙島八景과 觀光開發方向

33) 김승 (2001) 加沙島 廳村마을의 地先廳場* 利用管理 形顯의 變遷過程에 관한 調查研究

34) 가사출장소 전화인터뷰 (2016년 9월 7일)

35) 이윤선 (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島願適應과 변화에 대한 고찰

반드시 극복해야할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당제와 도깨비굿은 주민들이 오랜시간 살아오면서 자연환경과 순응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 및 도피처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한 결과로 가사도 주민들은 당제와 도깨비굿이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일상과 자연이 연결된 전통문화를 계승해왔다. 또한 마을의식을 통해 가사도의 세 마을주민들이 한곳에 모이게 하는 마을간 화합의 장으로도 작용해 왔다.

[표 10] 가사도 전통문화 요약표

구분		시행일	폐지일	내용
당제	할아버지당	정월 (3~5일 경)	약 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중심의 제사문화 여성과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함 제가 끝나면 마을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음 할아버지당은 당앞산 정상에 위치 (석실) 할머니당은 초기 마을에 위치 (초가집) 60년대 이후 당 앞산으로 이전 및 석실 재건 풍요다산을 기원
	할머니당			
도깨비굿		정월 자정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전유의 문화 남성은 구경하지도 참여하지도 못함 모든 여성들이 모여 집집마다 굿을 함 마을의 액귀를 내쫓음

위의 표를 참고하면 가사도의 당제와 도깨비굿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의식장소가 뚜렷하게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사도에서 바다라고 하는 생업공간을 전담하는 남성의 역할과 집과 마을이라고 하는 생활공간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통해 가사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전통행사다. 하지만 6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도시화에 따른 도서지역 인구유출에 대한 영향이 가사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마을의 오랜 전통인 당제와 도깨비굿

은 점차 사라지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전통행사는 문헌자료로만 남아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존의 마을행사를 행했던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은 방치된 상황이다.

(2) 돌목마을의 툇 문화

툇 양식은 가사도 주민들의 주력 사업이다. 툇은 동북아해역인 한국, 일본 등지에서 생산되는 모자반과에 속하며 가을에 뿌리에서부터 싹이나 번식하는 다년생 해초다³⁶⁾. 1950년대 가사도에서 최초로 자연산 툇 양식이 가사도 주민 임정관씨에 의해 시작되었다³⁷⁾. 이후 툇 양식은 가사도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지금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사도 내 툇 양식 상용화는 가사도 주민들이 속설로 믿어왔던 ‘어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전적으로 농업에 의지하면서 어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툇 양식이 활성화 되면서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지게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목마을은 어업을 겸하는 주민들과 어촌계를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통해 툇 양식 구역을 입찰하는 가사도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³⁸⁾.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각 어촌계 마다 지형에 의해서 툇 양식의 생육환경이 다르고, 관리의 수월함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어촌계중 한 구역을 매년 비워두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입주자를 위해 마련해 둔다. 돌목마을의 툇 문화는 지역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어 ‘툇’ 참고

37) 이윤선(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島願適應과 변화에 대한 고찰

38) 돌목마을 현 이장 김계섭(57) 인터뷰

(3) 돌목마을의 입주 및 마을문화

최근 톳 양식의 수입증가와 KBS 예능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1박2일’에서 가사도 섬마을 음악회를 통해 가사도가 홍보되면서 외부에서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제한된 자원의 고갈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위험이 기존의 섬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따라서 돌목마을 주민들은 독특한 입주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섬마을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마을입주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입주희망자는 2년 동안 돌목마을에 거주하면서 기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호(마을) 가입을 할 수 있다. 마을 주민이 된다는 것은 돌목마을의 어촌계를 분배받을 수 있어 톳 양식을 시작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톳 양식을 희망하는 입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다. 호 가입비용은 약 150만원 정도이다³⁹⁾. 호 가입비용은 마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도 쓰이며, 연말에 돌목마을 주민들에게 재분배된다. 분배된 금액은 많지 않으나, 몸이 불편한 마을 노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

톳 양식은 총 25가구 중 7가구 약 28%가 종사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가구가 낮은 이유는 첫째, 배를 소유해야만 톳을 양식할 수 있다. 둘째, 높은 강도의 노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에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톳 양식 수익의 일정금액을 마을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기부된 금액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마을 노약자들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쓰인다. 또한, 톳 건조, 정돈 등 사고의 위험이 적거나 단순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 마을 노인들에게 일당을 지불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돌목마을은 호 가입비, 톳 수익금, 일자리 제공 등 고령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39) 돌목마을 현 이장 김계섭(57) 최근 호 가입비용

2절. 지역자산 분석의 틀 및 방법

1. 지역자산 분석의 틀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틀을 설정한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돌목마을 재생과 마을 주민을 위함이다. 따라서 지역자산의 발굴기준은 돌목마을 재생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산은 돌목마을 고유의 지역적 특징과 차별성을 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발굴과 활용은 마을재생을 목표로 하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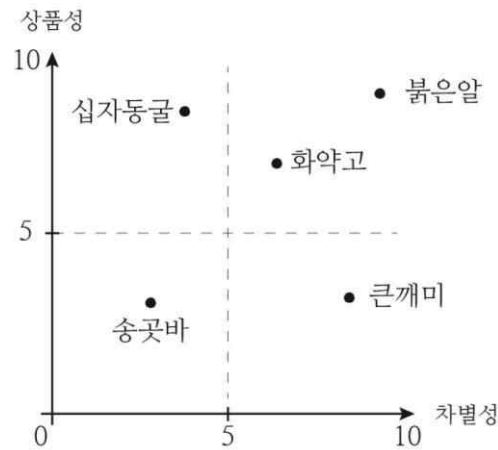
지역자산의 발굴방법은 참고문헌과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며, 발굴한 지역자산의 분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자산의 유형 중 돌목마을에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 유형을 도출한다. 이왕건 외(2001)와 백선희 (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11]과 같이 돌목마을에 활용 가능한 자산유형을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인터뷰를 통해 총 41개의 지역자산을 파악하였다. 파악한 지역자산은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뉘어진다. 유형자산은 총 36개로 주로 일제강점기 관련 광산, 선착장, 채석장, 낙석장 등 역사·문화 자산과 연못, 해안산책길, 섬 등 자연·생태자산이 주를 이루었다. 무형자산은 총 5개로 돌목마을의 주력산업인 톳 양식과 마을입주문화, 청년회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의 유형을 역사·문화자산, 자연·생태자산, 시설자산, 잠재자산, 경제적 자산, 사회적 자산으로 분류한다. 분류한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돌목마을 지역자산 유형

구분	세부구분	의미
유형자산	역사·문화자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의 보유
	자연·생태자산	지형, 기후, 청정 환경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
	시설자산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잠재자산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 될 수 있는 자산
무형자산	경제적자산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정도
	사회적자산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정도 및 지역의 정체성

지역자산의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2011)의 ‘지역자산평가도’를 토대로 한다. 선행연구의 평가방법은 지역자산의 차별성과 매력성을 구분하여 발굴한 자산의 잠재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자산 활용방안의 기본방향을 주민 스스로 정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상품성은 자원의 매력도가 높으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차별성은 타 마을과 비교해 지역성이 강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⁰⁾. 평가 한 자산을 종합하여 X축은 차별성, Y축은 상품성으로 평가점수를 [그림13]과 같이 시각화한다.

40) 농림수산식품부 (2012),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한국농어촌공사



[그림 11] 지역자산평가방법 예시
(출처: 농림수산물부 2011 재구성)

주민워크숍은 정은정 외(2008)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다. 선행연구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이미지맵을 제작하였다. 이미지 맵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하기 쉬운 수채화로 만들어 진행하였다. 정은정 외(2008) 주민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이미지맵의 효용성 검토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워크숍의 의의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을 조를 나눠 이미지맵을 제작하였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조별 이미지맵의 잠재성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상호간 의견교류를 통해 이미지맵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정 외(200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민워크숍을 진행한다. 첫째로,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미지맵을 제작하고, 주민들이 발표한다. 만들어진 이미지 지도에 대해 재논의 하여 잠재성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상호간 의견교류를 통해 이미지맵을 완성한다.

2. 지역자산 분석 방법

1) 지역자산의 발굴 및 유형화: 주민인터뷰

대상지 지역자산 현황 파악 및 분석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돌목마을에서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⁴¹⁾. 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산 위치, 배경, 관련 스토리 등 지역자산의 유형과 정보를 파악하였다. 파악한 물리적 지역자산 중 대다수는 약 20년 이상 방치되었고, 이에 관련한 문헌자료, 사진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희지로 전락해버린 지역자산은 주변 환경변화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자산 현장 조사와 사진기록을 위해 마을주민의 동행인터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돌목마을 주민 중 지역자산들을 과거에 이용하였거나 지역자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 4명을 선정하여 동행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자산을 파악하였다.

2) 지역자산 평가 및 마을 발전방향 의견 종합: 설문조사

파악된 지역자산을 통해 활용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워크숍이 필수적이다. 원활한 주민워크숍의 진행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기존 41개 지역자산 중 유형이 비슷한 자원들을 압축하여 대표적인 자산 25개를 선별하였다. 선별기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자산들 중, 언급 빈도가 높은 자산들을 우선 선별하였으며, 자원평가 설문을 통해 발굴한 자원의 잠재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 이미지와 추 후 마을의 발전방향을 설문하여 의견을 종합한다. 지역자산 평가는 상품성, 차별성을 주민들이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상품성은 자원의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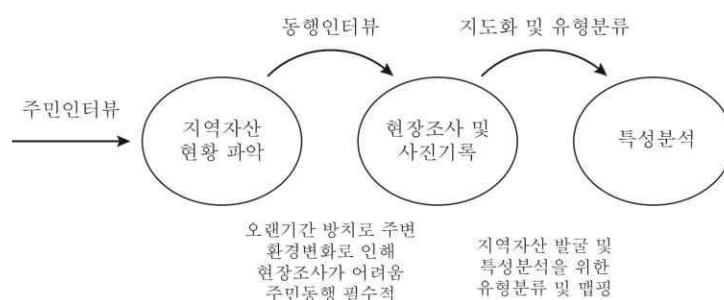
41) 1차 답사는 2016년 7월 3일부터 3일간, 2차 답사는 2016년 10월 3일부터 6일간 진행하였다.

력도가 높으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차별성은 타 마을과 비교해 지역성이 강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 이다. 평가 한 자산을 종합하여 X축은 차별성, Y축은 상품성으로 평가점수를 시각화한다.

3) 지역자산 활용방안 모색: 주민워크숍

본 연구에서는 정은정 외(200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미지맵을 통해 주민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미지맵은 적극적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관점과 목표의식을 갖게하며,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도 이미지맵이라는 도구의 경험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나의 지식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²⁾. 이미지맵은 물리적 지역자산의 도면화(mapping)를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민워크숍 목적은 지역자산의 도면화(mapping)와 활용방안(utilization plan)을 동시에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맵 제작과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민워크숍을 통해 진행된다.

지역자산 활용 본 연구에서는 주민워크숍을 두 차례 진행한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히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 간 의견교류를 통해 이미지맵을 제작하고, 주민들이 발표한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 네 가지의 이미지맵의 잠재성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 상호 간 의견교류를 통해 이미지맵을 완성한다.



[그림 12] 지역자산 발굴 과정

42) 정은정 외(2008), “주민워크숍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국토해양부

3.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가치 및 의미

1) 지역자산 및 활용가치

광역적인 의미에서 가사도는 전라남도의 264개 유인도 중 17%안에 드는 몇 안 되는 섬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광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당시 가사도가 세계 최고의 명반석 광산지로 알려진 사실이 과거 문헌에 기록된 바⁴³⁾ 기반시설 및 많은 인구가 다른 섬들에 비해 비교적 많다. 특히, 광산, 등대, 철로 등 주요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돌목마을은 가사도 내 다른 마을들에 비해 다양한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돌목마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자산은 유허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은 다른 두 마을과는 달리 과거 사용되었던 광산, 우물, 염전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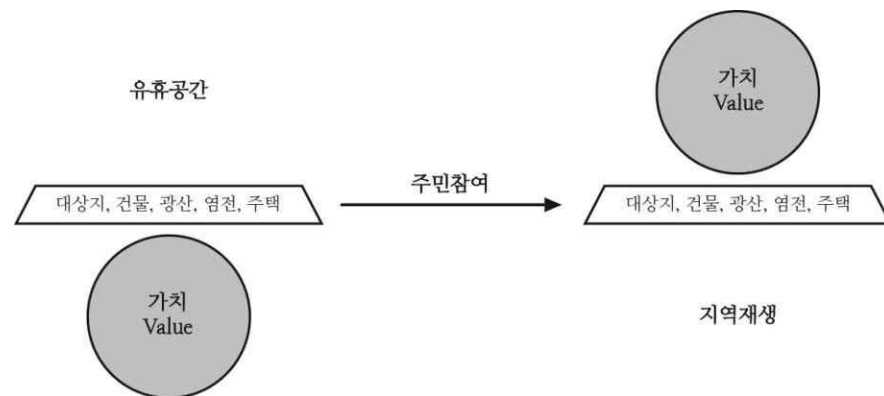
지역자산의 활용은 정부의 정책 및 사업방향과 맞춰 섬마을을 재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최근 돌목마을에서는 생태섬 조성 및 녹색농촌체험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각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낙후되고 침체된 마을을 재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활용은 현재 섬마을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돌목마을이 가지는 지역자산의 의미와 가치를 밝혀내 현재 정부의 사업방향에 맞춰 낙후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재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3) 조선민보 수록 신문내용 (1920)

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의 의미

돌목마을의 지역자산들은 주민들의 일상성과 문화,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의 장소성을 형성한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가치를 발굴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시켜온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돌목마을 주민들은 높은 주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바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는 주민참여를 통해 발전·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발굴과 활용방안 모색은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마을재생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돌목마을을 포함한 도서지역 마을은 지리적 불리한 환경적인 이유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제도적인 혜택에 후순위 대상이었다. 따라서 지역자산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나, 뚜렷한 대책이나 새롭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은 마을과 주민들이 노화되는 것과 비례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해당사자인 돌목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은 돌목마을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림 13]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가치재발견 개념도

제 4장 대상지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

1절.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발굴

1.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정의 및 분류





본 연구는 주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에 대한 정의는 이 해당사인 주민들의 인식과 의견이 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의 정의는 지역 특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산으로서,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며 세대에 걸쳐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지역자산은 주민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들을 기반으로 일차적으로 정의되며, 문헌참고와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유형화한다. 지역자산의 분류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자산의 유형 중 돌목마을에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 유형을 도출하여 분류한다.

본 연구는 총 41개의 지역자산을 발굴하였다. 41개의 지역자산은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을 역사·문화자산, 자연·생태자산, 시설자산, 잠재자산으로 세분화 하였다. 무형자산은 경제적자산과 사회적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2. 돌목마을의 유형자산





1) 역사·문화자산

[표 12] 돌목마을 지역자산 표





장 소 명	현장사진	인터뷰	조사 내용
1. 제 조 관		“제조관이라 해가지고 작업장이었어요. 여름에 는 여기서 마을사람들 다 모여서 놀고 쉬고 그랬어요.” -이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때 광산에 서 채취한 고령토를 말려놓는 건조 공간 • 초기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터가 일부 남아있음 • 주민들은 모임공간으 로 사용
2. 화 약 고		“화약고는 옛날에 지 붕에 피뢰침이 있었제. 그대로 있어. 그게 그 뽀뽀뽀(피뢰침) 그거 만 없제 그대로 있 어.” -최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에 사용될 화약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 주변에 토벽이 둘러싸 고 있으며 피뢰침을 제외하고 원형이 그대 로 남아있음
3. 일 제 신 당		“일제강점기 때는 일 본인들이 여기서 제사 를 지냈어요. 신당이 서 남향이에요. 다른마을은 동남쪽을 보고있는데, 우리마을만 서남쪽을 보고 있어요.” -최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종교행사 공간 • 신당이 서남향이라 돌 목마을 집들도 이에 영향을 받음 • 현재 신당 터만 남아 있는 상황
4. 넓 적 동 굴		“어릴 때 동굴이란 동굴은 다 들어가 보면서 놀았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넓직한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30년만에 처음 와보네요.” -문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광산채굴 현장 • 광복 후 이곳은 어린 이들의 놀이터로 바뀌 었음 • 1980년도부터 서서히 방치된 공간




5. 방 공 호		<p>“산 중턱에 방공호가 3개가 이어져있어요.” -이OO</p> <p>“어릴때는 계딱지에 실을 이어서 산 밑에서 부터 여기까지 무전놀이를 했죠.” -문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시절 방공호 • 산 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6. 십 자 동 굴		<p>“예전에 돌목마을 주민들이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일했지. 강제로 모집도 많이 가고. 여자들은 안가고. 남자들만.” -최OO</p> <p>“여기서 광물을 캐서 낙석장에 돌을 굴렸어요. 예전에 황금박쥐 한 마리가 와서 사진찍었죠.” -이OO</p> <p>“주민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가서 거기서 라면먹고 쉬고 그러더라고.” -강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가 십자가 모양으로 파여 있어 십자동굴이라 불림 • 현재 생태섬 사업으로 동굴 입구까지 길이 생겼으나, 내부 공간은 활용되고 있지 않음
7. 가 마		<p>“그 가마. 돌 구워가서 나갔어. 구르마(핸드카트)로 끄서다가 돌을 굽고 거기다 베다고 실어다 날랐제. 금광한데.”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동굴에서 채취한 광물을 구웠던 곳 • 가마에서 구운 광물은 선착장으로 운송 • 원형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8. 여 너 매		<p>“해방될 때 일본놈들이 가야똥께 보이기만 하믄 막 총쏘고. 배타고 도망가야제. 싸야제. 못쏘믄 지가 죽제.”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때 광물 수탈을 손쉽게 하기 위해 광산 인근 해안에 만들어진 선착장 • 원형 일부가 남아있음

9. 채 석 장		<p>“예전 나 어릴 땐 여기를 현광산이라고 했어요.” -문OO</p> <p>“여기서 칼싸움도 하고, 다리에 밧줄 매달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았죠.” -이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 자동굴 인근 채석장 • 동굴에서 채취한 광물을 낙석장으로 운송하여 선착장으로 운반
10. 최 순 례 할 머 니 댁		<p>“한 120년 되었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여. 일제강점기때 파출소였제.” -정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최고령 황토주택 • 일제강점기 때는 파출 소로 쓰였으며, 지붕, 창을 제외한 외벽은 원형유지
11. 낙 석 장		<p>“십자동굴에서 광물을 캐서 낙석장에서 돌을 굴러요. 돌을 굴리면 바다까지 가는거예요.” -강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집된 광물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시설 • 낙석장에서 광물을 굴 리면 바로 밀 바다까지 떨어져 선착장 바로 앞 에 광물이 쌓임
12. 십 자 동 굴 출 구		<p>“저 위에 있는 십자동굴있죠? 거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경사가 가팔라서 절벽처럼 내려와요.” -문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동굴 출구 • 내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소의 이동통로로 사용






13. 꽃 잔 디		<p>“예전엔 여기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자생하는 꽃잔디가 여기를 덮었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덮인게 너무 아쉬워요.”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잔디 자생지대 • 현재는 톳 건조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덮여 있음
14. 배 나 끼 미		<p>“여기는 정말 특이한곳이에요. 이쪽을 보면 여기만 톳줄이 없죠? 일제강점기때 일본인들이 여기에 선착장을 만드려고 저 앞에 보이는 소동도까지 돌을 채워놨어요. 한 절반정도 진행하다가 광복되고 멈췄어요. 물이 낮을 때 바닷길이 보여요.”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동도까지 이어지는 바닷길 • 일제강점기때 선박을 목적으로 광물과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어짐 • 해수면이 낮을 때 바닷길이 보임
15. 붉 은 알		<p>“돌이 빨게. 집채덩어리 만해. 옛날에 거기서 기와집 지서갖고 잘 살았데.” -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빛깔을 띠는 바위가 있어서 붉은알이라 불림 • 주민들이 과거 이곳에 소를 데려와 보리를 먹였던 곳 • 돌목마을에서 붉은알로 가는 길은 해안경사지로 뛰어난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16. 마 을 우 물		<p>“마을사람들이 이 물을 다 먹었지. 잘 나와. 아주 좋은물이여. 예전에는 다 이 물 마셨제.” -임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우물 • 마을주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한 우물 • 지금은 사용하지 않음

2) 자연 · 생태자산




장소명	현장사진	내용
1. 까마귀굴		<p>“이상하게 여기에 까마귀들이 엄청 살았어요. 그래서 까마귀 굴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까마귀 굴하면 (주민들은) 어딘지 다 알아요.” -최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마귀 집단 서식지 • 하나의 마을지명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함
2. 처녀강		<p>“여기가 진짜 처녀강이에요. 저 밖에 있는 곳은 처녀강이 아니죠. 옛날에 여기서 바위도 타고 그랬어요. 비가오면 정말 경치가 좋아요.” -문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도 처녀의 사랑에 관한 전설이 담긴 연못 • 생태섬사업(2015)으로 관광지로 개발됨
3. 박쥐동굴		<p>“어릴 때 햇불로 박쥐 잡는다고 박쥐동굴까지 올라가서 놀았죠. 십자동굴에 박쥐가 몇 마리 있고, 여기에 박쥐가 정말 많이 살고있어요.” -문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박쥐동굴 • 십자동굴 서편에 위치해 있음
4. 동백나무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십자동굴 인근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음

<p>5. 생태 탐방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섬사업으로 조성된 생태 탐방로 • 탐방로의 길이는 약 600m로 십자동굴부터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음
<p>6. 해안 산책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섬사업으로 조성된 해안산책길 • 산책길의 길이는 1.6km로 가사등대부터 돌목마을까지 이어져 있음 • 중간중간에 쉼터와 정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사도의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p>7. 돌목 해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유일한 해수욕장 • 모래가 매우 작고 부드러워 여름 성수기에 200~3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옴⁴⁴⁾

44) 돌목마을 2016년 이장 김OO(57) 인터뷰 내용

8. 큰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200m 정도의 가사도에서 가장 높은 산 •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광산 및 관련 유적들이 남아있음 • 생태섬사업이 큰 산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음
9. 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갈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 돌목마을에서 마도와 인근 무인도가 연출하는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10. 대소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주민들은 대소동도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바다이름을 나눈다고 함 • 동쪽 바다는 먼바다로 파고가 높으며 수심이 깊은 바다 • 서쪽 바다는 파도가 잔잔하며 툇 양식에 유리한 물바다로 불림
11. 소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주민들의 낚시터 • 일제강점기때 선박을 목적으로 광물과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어짐 • 해수면이 낮을 때 바닷길이 보임
12. 각홀해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클해변 남서쪽으로 얕은 구렁이 발달되어 과거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 문제로 그대로 방치됨

3) 시설자산

장소명	현장사진	내용
1. 가사도 등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년 처음 점등을 시작하여 특수항로표지 중심지로 무인등대에서 유인등대로 발전 • 국내 최초 국산회전식대형등명기
2. 내연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 에너지발전소가 설립되기 전 1990년도부터 가사도의 전체 전력공급을 관리해온 시설 • 현재는 에너지발전소와 협력하여 전기를 공급함
3. 에너지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섬으로 가사도 전체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시설

4) 잠재자산

장소명	현장사진	내용
1. 빈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 예전에는 경작을 했으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농지

2. 빈집 164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 마을내 거주지 이전, 타 지역으로 이동 등으로 방치된 집 • 돌목마을 곳곳에 빈집들이 위치해 있음 • 빈집들은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소한의 관리로 마을차원에서 활용 가능함⁴⁵⁾
3. 빈집 173번지		
4. 빈집 175번지		
5. 창고 166번지		

45) 돌목마을 2016년 이장 김OO(57) 인터뷰 내용 참고

3. 돌목마을의 무형자산

1) 경제적자산

(1) 툇 문화

“예전에 내가 시집살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마을주민들과) 얼굴도 모르고 서로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로도 없고 산길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툇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서로 같이 일해야 하니까 서로 알아야 하니까 친해지게 되었지요. “ -강OO



[그림 14] 툇 수확과정 사진(2016.10.24.)

툇은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의 대표수입 사업이다. 1950년대 가사도에서 최초로 자연산 툇 양식이 가사도 주민 임OO씨에 의해 시작되었다⁴⁶⁾. 이후 툇 양식은 가사도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지금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사도 내 툇 양식 상용화는 가사도 주민들이 속설로 믿어왔던 ‘어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마을과 마을간의 관계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46) 이윤선(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島願適應과 변화에 대한 고찰

가사도의 툇 생산방법은 닻을 내리기 용이한 해안근처에서 1ha 규모의 사각의 틀을 밧줄로 제작하여 닻을 내려 고정시킨 후 그 사이에 밧줄을 연결하여 설치하여 양식한다⁴⁷⁾.

툇 구역은 가사도어촌계에서 관리한다. 즉, 어촌계원이 되어야지만 구역을 입찰받아 정식적인 툇 양식을 할 수 있다. 툇은 사계절 내내 노동력이 필요하다. 12월부터 1월까지 닻을 메달아 1ha 면적의 틀을 설치하고 툇 뿌리를 밧줄에 꿰맨다. 그렇게 4~5월 까지 툇을 양식하고, 8월부터 툇을 채취하기 시작한다. 툇을 양식하는 과정에서 밧줄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떨어진 툇 뿌리를 다시 꿰매는 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한다. 또한 밧줄에 착생하는 기타 해조류를 제거해 주어 툇 성장과 품질을 극대화 한다. 생산된 툇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다.

(2) 돌목마을 농업

“저기 밭들좀 보세요. 다 뭐예요? 대파지요? 왜 대파냐고요?
태풍에 쓰러져도 잘 살고 관리도 쉬운 것이 대파예요.” -문OO



[그림 15] 돌목마을 주변 농지

47) 2016.10.06. 돌목마을 주민 박길영 인터뷰 내용

돌목마을 대파를 주 농업으로 삼는다. 대파를 심는 이유는 돌목마을의 물리적환경과 생활환경에 잘 맞기 때문이다. 돌목마을의 지세는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트여있다. 때문에 돌목마을 방향으로 바람이 사계절 내내 강하게 불어 풍해가 쉽게 발생한다. 또한 잦은 태풍으로 경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⁴⁸⁾. 또 다른 이유로는 툇 양식으로 인한 노동시간 부족이다. 툇 양식은 연중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대파농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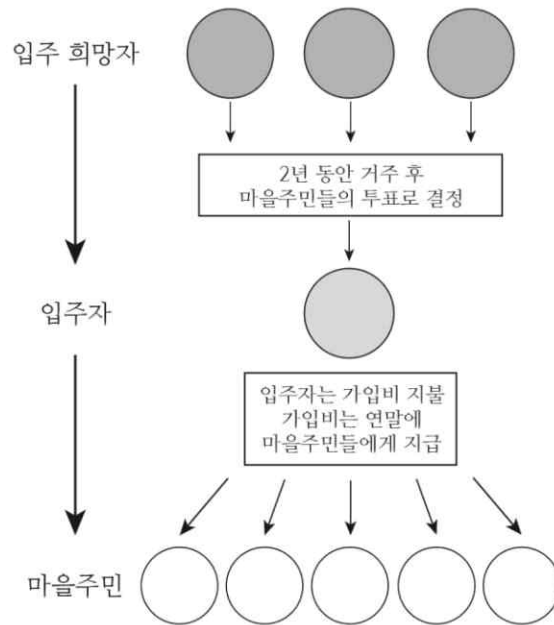
2) 사회적자산

(1) 마을입주 문화

마을입주는 돌목마을의 독특한 문화다. 돌목마을에서는 마을주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입주희망자는 2년 동안 돌목마을에 거주하면서 기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호(마을) 가입을 할 수 있다. 마을 주민이 된다는 것은 돌목마을의 어촌계를 분배받을 수 있어 툇 양식을 시작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툇 양식을 희망하는 입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호 가입비용은 약 150만원 정도이다⁴⁹⁾. 호 가입비용은 마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도 쓰이며, 연말에 돌목마을 주민들에게 재분배된다. 분배된 금액은 소액이나, 마을 노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는 구조다.

48) 2016.10.05. 돌목마을 주민 문종신 인터뷰 내용

49) 돌목마을 현 이장 김계섭(57) 최근 호 가입비용



[그림 16] 돌목마을 호 가입 과정

(2) 가사도 청년회

“가사도는 청년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추석무렵에 운동회를 한다던가 노래자랑을 한다던가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하고, 노래자랑은 계속했고. 요즘은 힘들어서 노래자랑은 격년제로 하자 이러는 말도 있지요. “ -이OO

가사도는 청년회가 존재한다. 청년회가 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청년회는 정확한 연령제한이 없으나 가사도 주민 40~60대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과 마을간의 행사는 청년회가 모두 전담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사도 운동회와 노래자랑이다. 운동회와 노래자랑은 매년 추석에 진행된다. 추석 기간에는 타지의 친인척들도 모두 가사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운동회와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때문에 운동회와 노래자랑은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 최대의 마을 축제 중 하나다. 지금은 중단되었으나, 1980년도까지만 해도 청년회에서 가사도 전체 행사인 당제도 진행했다고 하며⁵⁰⁾, 마을 주민들의 상을 치루는 일도 도맡아서 해왔다.

(3) 장례문화

“상여하면 동네에서 놀제. 소리꾼 불러다가.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사람들이 놀아주는게 예의야. 소리꾼 불러서 밤새 놀아주고 난리제. 누군가 죽으면 호상이다. 재밌게 노는게 일이니까. 댜데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 상여는, 신나게 놀아.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은 청년들이 지금도 메깁고 다 같이 와서 놀아주지.” -강OO

장례문화는 가사도를 포함한 진도 등 독특한 문화다. 가사도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온 주민들이 초상집에 가서 3일 동안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 재밌게 놀아주는 것이 고인(故人)에 대한 예의라고 한다. 최근까지 가사도는 상례를 치뤘다⁵¹⁾. 상례는 시신을 가마에 태워 운구하는 전통문화다. 가사도의 장례 또한 청년회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청년회 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상여를 메고, 3일 동안 춤추고 노래를 불러 고인(故人)에 대한 예를 갖춘다.

50) 이윤선 (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島願適應과 변화에 대한 고찰

51) 2016.10.05. 돌목마을 주민 강귀숙 인터뷰 내용

4.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종합



[그림 17] 주민 동행인터뷰 지역자산 발굴 과정

[표 13]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분류

구분		세부구분	장소명
지역 자산	유형 자산	역사·문화자산	제조판, 화약고, 일제신당, 넓적동굴, 방궁호, 십자동굴, 가마, 여너매, 채석장, 최순례 할머니댁, 낙석장, 십자동굴 출구, 붉은알, 마을우물
		자연·생태자산	까마귀굴, 처녀강, 박쥐동굴, 동백나무길, 생태탐방로, 해안산책길, 돌목해변, 큰산, 마도, 대소동도, 소동도, 각흙해변, 꽃잔디
		시설자산	가사도등대, 내연발전소, 에너지발전소
		잠재자산	빈농지, 빈집(164, 173, 175번지), 창고(166번지)
	무형 자산	경제적자산	툇 양식, 마을농업
		사회적자산	마을입주문화, 가사도 청년회, 장례문화

따라서 돌목마을 주민 중 지역자산들을 과거에 이용하였거나 지역자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 4명을 선정하여 동행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자산을 파악하였다. 지역자산은 총 41개로 이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고, 지역자산 유형을 1)역사·문화자산, 2)자연·생태자산, 3)시설자산, 4)잠재자산, 5)경제적자산, 6)사회적자산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18] 돌목마을 지역자산 분포도

5. 돌목마을 지역자산 특성 분석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은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되고 현황 파악 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주민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돌목마을 지역자산 특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자산의 가치와 지역자산의 활용 잠재성을 파악한다. 특성 분석은 지역자산 발굴과정에서 진행한 주민 인터뷰 내용과 추가적인 전화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돌목마을의 역사·문화자산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담긴 자산이나 대부분 방치 및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역사·문화자산은 주민들의 정체성을 담은 자산으로서 외부인을 위한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산은 관리 및 복원작업이 필요하다. 자연·생태자산은 마을주민들의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이다. 돌목마을 주민들은 자연·생태자산을 마을의 지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자연·생태자산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섬 사업에 활용 된 바 있다. 시설자산은 가사도 등대를 포함해 내연 발전소와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시설자산은 모두 활용되고 있다. 추 후 관광객유치와 마을발전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자산은 모두 방치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추 후 마을발전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안내소 및 입주자를 위한 탁아소 등으로 활용가능하다. 돌목마을의 무형자산은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있으나 톳 문화를 제외한 타 자산들은 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실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돌목마을 지역자산 특성 표

역사·문화자산				
지역자산	주민 가치	상태	문제점	활용 가능성
제조관	고령토 건조장 및 옛 주민들의 사회활동 공간	훼손	훼손의 정도가 심함. 자산 소실의 우려가 있음	복원하거나 관리하여 마을스토리 중 하나로 활용가능
화약고	타 마을과 다르게 광산에서 사용하는 폭약을 저장했던 화약고	방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마을 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활용가능
일제신당	일제강점기 때 돌목마을 집들이 신당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 가사도에서 유일하게 서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훼손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마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마을스토리 중 하나로 활용
넓적동굴	돌목마을 동굴 중 유일하게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공간적 지표가 되는 공간	방치	돌목마을 내 옛 길이 사라져 동굴까지 가는 길이 끊김	돌목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옛 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연계가능
방공호	일제강점기 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마을 어린이들의 몇 안 되는 놀이터	방치	돌목마을 내 옛 길이 사라져 방공호까지 가는 길이 끊김	돌목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옛 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연계가능

십자동굴	가사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해 있어 가사도의 대표적인 지역자산으로 인식됨	부분 활용	생태섬 사업으로 십자동굴까지 포장도로가 생겼으나, 주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굴 내부는 그대로 방치됨	예전부터 주민들이 이동통로로 사용한 바 동굴을 개선하여 둘레길로 활용
가마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일제 광물수탈의 대표적 장소중 하나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생태섬사업으로 해안산책길이 가마 주변에 조성되어 접근성이 높아 마을이야기가 담긴 둘레길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
여너매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일제 광물수탈의 대표적 장소중 하나	부분 훼손	훼손의 정도가 심함. 자산 소실의 우려가 있음	마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마을스토리 중 하나로 활용
채석장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일제 광물수탈의 대표적 장소중 하나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십자동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활용가능

최순례 할머니 댁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일제강점기 때 집의 원형 일부를 유지함	사용	현재 마을의 최고령자인 최순례씨가 거주중이나 이후 자산 변질 및 소실의 우려가 있음	지붕을 제외하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나, 관리 및 보존 방안이 필요함
낙석장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일제 광물수탈의 대표적 장소중 하나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십자동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활용가능
십자동굴 출구	십자동굴의 출구로 산 정상에서 동쪽 해안가로 이어져 옛 주민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됨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십자동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활용가능
꽃잔디	가사도에서 유일한 꽃잔디 군락지	훼손	꽃잔디 군락지가 툇 건조장으로 대체되었으나 건조장 또한 일시적 이용에 불과함	꽃잔디 군락지로 복원 가능함
배나끼미	돌목마을 주민들의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가사도의 유일한 인공 바닷길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보존 및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붉은알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옛 농경지로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	방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되어 붉은알까지 가는 길이 사라짐	돌목마을에서 붉은알로 가는 길은 뛰어난 해안경관을 볼 수 있어 마을의 둘레길 코스로 활용 가능
마을우물	돌목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가뭄 등 악천후 시 타 마을 주민들도 사용함.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 오랜 기간 방치 됨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보존 및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자연·생태자산				
까마귀굴	까마귀 집단 서식지로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함	보존	-	둘레길의 지표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며 보존에 주 목적을 둠
처녀강	마을의 전설이 담긴 자연자산	방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마을의 자연유산으로 둘레길로 연계가능
박쥐동굴	박쥐 집단 서식지	보존	-	둘레길의 지표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며 보존에 주 목적을 둠
동백나무 길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 경관	활용	-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음

생태 탐방로	뛰어난 해안경관과 마을경관을 볼 수 있음	활용	-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음
해안 산책길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활용	-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산책길 조성되어 있음
돌목해변	돌목마을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모래의 질이 좋고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활용	-	둘레길과 마을의 관광 및 체험시설로 활용 가능
큰 산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광산 및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가사도에서 가장 높은 산	활용	-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탐방로 및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음
마도	돌목마을에서 마도와 인근 무인도가 연출하는 해안경관	보존	-	낚시프로그램
대소동도	먼바다와 앞바다의 기준이 되는 섬	보존	-	둘레길의 지표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며 낚시 등 체험장소로 활용 가능
소동도	해수면이 낮을 때 바닷길이 이어져 있으며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함	보존	-	둘레길의 지표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며 낚시 등 체험장소로 활용 가능
각홀해변	주민들 간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며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볼 수 있음	방치	마을에서 거리가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되어 길이 사라짐	돌목마을에서 각홀해변으로 가는 길은 뛰어난 해안경관을 볼 수 있어 마을의 둘레길 코스로 활용 가능

시설자산				
가사도 등대	국내 최초 국산 회전식 대형등명기. 일제강점기전 부터 유지되어 온 역사가 깊은 등대	활용	-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등대 주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음
내연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사도 주민들의 전기를 공급해온 발전소	활용	돌목마을에 위치해 있으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활용이 계획 되어있지 않음	둘레길과 마을의 관광 및 체험시설로 활용 가능
에너지발전소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섬으로 가사도의 전기공급을 담당	활용	돌목마을에 위치해 있으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활용이 계획 되어있지 않음	둘레길과 마을의 관광 및 체험시설로 활용 가능
잠재적 자산				
빈 농지	돌목마을의 주업이었던 농업의 쇠퇴와 산업의 변화로 방치되었으나 주민들은 빈 농지를 추 후 마을발전에 활용하고 싶어 함	방치	사유지이며, 예전에는 경작을 했으나 지금은 방치되어 있음	대부분의 빈농지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안경관을 볼 수 있어 추 후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
빈 집 및 창고	주민들이 마을 내 거주지 이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등으로 방치 되었으나 추 후 마을발전에 활용하고 싶어 함	방치	사유지이며, 빈집들이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마을의 경관을 훼손함	추 후 숙박시설, 안내소 및 입주자를 위한 탁아소 등으로 활용가능

경제적 자산				
툇 문화	마을의 주업. 단체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 간 공동체 형성에 중요	활용	-	툇 건조 체험 및 툇 양식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며, 마을의 특산품으로 판매가능
마을 농업	대파는 마을의 주력 농업으로 관리에 용이해 주로 고령자가 자급자족 수단으로 재배함	활용	마을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져 점차 빈 농지가 생겨나고 있음	마을의 특산품 중 하나로 판매가능
사회적 자산				
마을입주 문화	돌목마을의 특성이 내포된 마을입주 문화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음	활용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나 마을 인구감소로 인해 입주문화가 소실 및 축소 될 위험이 있음	마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마을을 소개 및 홍보하는 도구 중 하나로 활용 할 수 있음
가사도 청년회	가사도의 전반적인 행사를 담당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소실 위기	가사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추세며 이에 따라 해체 될 위험이 큼	가사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마을을 소개 및 홍보하는 도구 중 하나로 활용 할 수 있음
장례문화	가사도의 대표적 행사 중 하나	소실 위기	가사도의 인구감소와 문화의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중단 된 바 소실될 위험이 큼	가사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마을을 소개 및 홍보하는 도구 중 하나로 활용 할 수 있음

2절.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활용

1.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

1) 설문개요

지역자산평가와 지역의 이미지,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 24일 8시부터 4시 30분까지 돌목마을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및 지역자산 평가표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설문의 목적은 자산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주민들의 지역의 개발방향 의견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돌목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자산의 상품성, 매력성, 이미지, 미래상 등에 대해 조사하여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거나, 문맹일 경우 연구자가 기입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15] 설문 대상자 정보

대상자	성별	연령	직업	거주기간	비고
장00	여	80대	툇 양식	20년 이상	일본 출생
김00	여	50대	툇 양식	20년 이상	토박이
최00	여	40대	툇 양식	20년 이상	한옥거주
문00	남	50대	툇 양식	20년 이상	토박이, 한옥거주
김00	여	7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한옥거주
박00	남	70대	농업	20년 이상	토박이
김00	여	8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장00	여	8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장00	여	60대	툇 양식	5년 이상~ 10년 이하	
최00	여	9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문00	여	50대	자영업	5년 이상~ 10년 이하	
김00	여	70대	농업	20년 이상	토박이
임00	남	8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한옥거주
박00	남	70대	무직	20년 이상	토박이
김00	남	50대	툇 양식	5년 이상~ 10년 이하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은 돌목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24일 8시부터 4시 30분까지 돌목마을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17세대 23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65%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거주기간, 월 소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5명, 여자10명으로 남:33.3%, 여:66.6%의 비율이다. 나이는 40대 1명(6.7%), 50대 4명(26.8%), 60대 1명(6.7%), 70대 4명(26.8%), 80대 4명(26.8%) 90대 1명(6.7%)로 50대, 70대, 80대가 대다수였다. 돌목마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자가 80%로 대다수였으며, 나머지 20%는 5년에서 10년 이하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이 각각 13.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5	33.3
	여자	10	66.6
나이	40대	1	6.7
	50대	4	26.8
	60대	1	6.7
	70대	4	26.8
	80대	4	26.8
	90대	1	6.7
거주기간	5년~10년	3	20
	20년 이상	12	80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0	66.7
	100이상 200만원 미만	1	6.7
	200이상 300만원 미만	2	13.3
	300만원 이상	2	13.3

3) 돌목마을 지역자산 평가

지역자산평가는 상품성, 차별성을 주민들이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상품성은 자원의 매력도가 높으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차별성은 타 마을과 비교해 지역성이 강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 한 자산을 종합하여 X축은 차별성, Y축은 상품성으로 평가점수를 시각화하여, 마을대표자원, 프로그램 및 체험 활용가능 자원, 보존 및 잠재자원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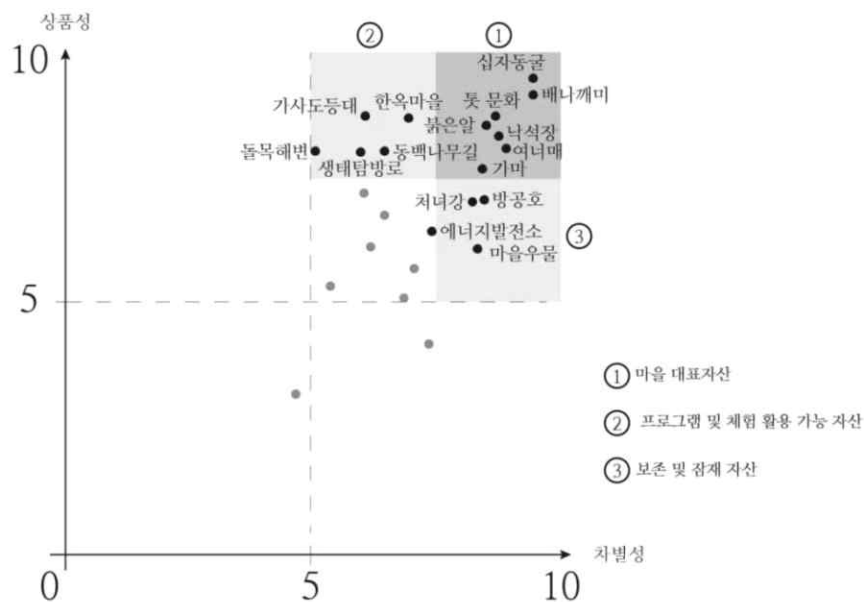
[표 17] 지역자산 평가표

자산명	상품성(평균값)	차별성(평균값)	합계 (상품성+차별성/2)
제조관	5.17	7.53	6.35
화약고	3.93	7.6	5.77
방공호	7.07	8.47	7.77
십자동굴	9.37	9.40	9.39
가마	7.67	8.27	8.13
여너매	8.13	8.87	8.5
옛 파출소	6.73	6.93	6.83
꽃잔디	6.40	7.40	6.90
배나깨미	8.93	9.40	9.17
붉은알	8.60	8.60	8.60
마을우물	6.47	8.33	7.40
처녀강	7.27	8.67	7.97
동백나무길	8.13	6.40	7.27
생태탐방로	8.07	6.00	7.04
해안산책길	7.87	6.07	6.94
돌목해수욕장	8.13	5.33	6.73
각홀해변	5.33	5.40	5.37
한옥마을	8.67	6.87	7.77
낙석장	8.63	8.80	8.72
채석장	5.53	7.13	6.33
가사도등대	8.73	6.73	7.73
에너지발전소	6.40	7.73	7.07
빈 집, 창고	3.40	4.87	4.14
툇 문화	8.80	8.73	8.77
청년회	4.53	6.53	5.53

지역자산은 사분면으로 정리하여 평가하였다. x축은 차별성, y축은 상품성으로 구분하여 차별성과 상품성이 모두 나타난 자산과 차별성 또는 상품성이 높게 나타난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선행연구인 농림수산식품부(2011)의 지역자산 평가도를 참고하였다.

지역자산은 십자동굴(9.39), 배나깨미(9.17), 툇 문화(8.77), 낙석장(8.72), 붉은알(8.60), 여너매(8.50), 가마(8.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합산 점수 10점 중 8점 이상의 장소로 7곳이며, 그 다음으로 처녀강(7.97), 방공호(7.77), 한옥마을(7.77), 가사도등대(7.73), 마을우물(7.40), 동백나무길(7.27), 에너지발전소(7.07), 생태탐방로(7.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표지역자산을 제외하고 차별성이 타 자산보다 높게 나온 자원으로 처녀강(8.67), 방공호(8.47), 마을우물(8.33)이 있다. 상품성이 높게 나온 자산으로는 가사도등대(8.73), 한옥마을(8.67), 동백나무길(8.13), 돌목해수욕장(8.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지역자산 평가도로 표시해보면 다음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지역자산 평가표



[그림 20] 돌목마을 대표지역자산 분포도

4) 돌목마을 대표이미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돌목마을의 대표이미지 설문은 주관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대표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역사·문화자산, 툇, 청정환경,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해안경관, 생태탐방로, 큰산, 돌목해수욕장으로 총 8개의 대표이미지가 분류되었다. 중복되는 이미지 포함 총 26회가 언급되었다.

대표이미지는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문화자산이 9회(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옥에서 보이는 해안경관 5회(19.2%), 툇 양식, 돌목해수욕장 각각 4회(15.4%), 큰산 2회(7.7%), 청정환경, 생태탐방로 각각 1회(3.9%)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해안경관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4명(15.4%)은 모두 한옥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는 한옥마을이 돌목마을 상부에 위치해 있어 돌목마을과 해안경관이 보이는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8] 돌목마을 대표이미지 분석

대표이미지	빈도(횟수)	비율(%)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자산	9	34.6
툇 양식	4	15.4
청정환경	1	3.85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해안경관	5	19.2
생태탐방로	1	3.85
큰산	2	7.7
돌목해수욕장	4	15.4
총 합계	26	100

5) 돌목마을의 미래 발전방향

주민들이 희망하는 돌목마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은 주관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돌목마을의 미래 발전방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청정환경 총 3가지 키워드가 27회 언급되었다. 관광지 개발에 관련 언급된 키워드 횟수는 총 11회(40.7%), 노인 일자리 창출 9회(33%) 및 청정 환경은 각각 7회(25.9%)로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의 월 소득 응답자의 경우 고령자 일자리 창출(31.6%), 관광지 개발(36.8%), 청정환경(31.6%)로 비슷한 비율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 관광지 개발(100%)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 소득 설문자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33.3%), 관광지 개발(33.3%), 청정환경(33.3%)로 균등한 마을 발전을 희망하였다. 300만원 이상의 월 소득 설문자는 고령자 일자리창출 2회(50%), 관광지 개발 2회 (50%)로 답변하였다.

[표 19] 주민특성에 따른 마을 미래 발전방향

유형	구분	고령자 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청정환경	합계
월 소득	100만원 이하	6	7	6	19
		31.6%	36.8%	31.6%	100%
	100이상 200만원 미만	0	1	0	1
		0%	100%	0	100%
	200이상 300만원 미만	1	1	1	3
		33.3%	33.3%	33.3%	100%
	300만원 이상	2	2	0	4
		50%	50%	0%	100%
빈도횟수	합계	9	11	7	27

6) 마을 발전사업 참여의사

해설사, 숙박, 임대 등 돌목마을 발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총 14명(93.3%)로 매우 적극적이다. 나머지 한명의 경우 참여의사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해 마을 발전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주민은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남성의 경우 적극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은 80%, 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은 20%로 설문에 참여한 모든 남성의 경우 적극적 참여의 의사를 밝혔다. 여성의 경우 적극참여 5명(50%), 참여4명(40%), 보통 1명(10%)로 응답하였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응답자 총 10명 중 6명(60%)이 적극참여, 4명이(40%) 참여의사를 밝혔다. 월 소득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 1명(100%)은 보통의 참여의사를 밝혔다.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응답자 2명 중 1명(50%)이 적극참여, 나머지 1명(50%)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응답자 2명(100%) 모두 마을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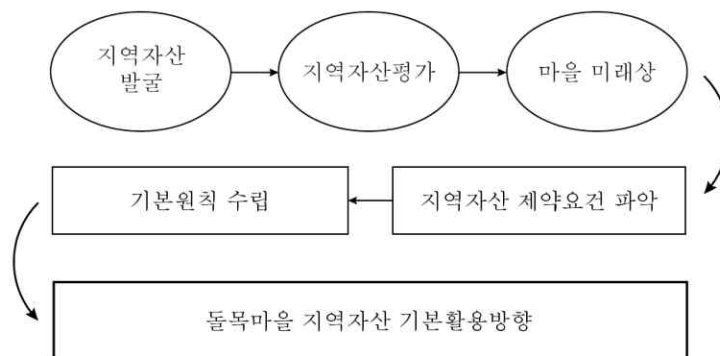
[표 20] 주민특성에 따른 마을 발전사업 참여의사도

유형	구분	적극불참	거의불참	보통	참여	적극참여	합계
성별	남자	0	0	0	1	4	5
		0%	0%	0%	20%	80	100%
	여자	0	0	1	4	5	10
		0%	0%	10%	40%	50%	100%
거주기간	5년~10년	0	0	0	1	2	3
		0%	0%	0%	33%	66%	100%
	20년 이상	0	0	1	4	7	12
		0%	0%	8.3%	33.3%	58.4%	100%
월 소득	100만원 이하	0	0	0	4	6	10
		0%	0%	0%	4%	60%	100%
	100이상	0	0	1	0	0	1
	200만원 미만	0%	0%	100%	0%	0%	100%
	200이상	0	0	0	1	1	2
	300만원 미만	0%	0%	0%	50%	50%	100%
	300만원 이상	0	0	0	0	2	2
		0%	0%	0%	0%	100%	100%

2. 지역자산 활용방향 설정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기본 활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자산의 제약조건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활용 방향 기본설정은 비전문가인 동시에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목표의식을 고양하고, 활용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자산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의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활용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기본 활용 방향 설정과정은 분석된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마을주민들이 큰 맥락에서 원하는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에 근거한다. 또한, 마을주민과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자산의 제약요건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큰 맥락에서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기본 활용방향을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정 과정은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지역자산 기본 활용방향 설정 과정

1)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의 제약조건

돌목마을과 같은 도서지역의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마을발전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개발 및 정비방식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부분적·점진적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업방식과 개발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⁵²⁾. 따라서 성공적인 도서지역 재생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을 점진적으로 활용 및 개발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돌목마을 재생사업이 도서지역 재생 및 활성화 사업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목마을의 다양한 특성과 역량이 필수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민들의 고령화 문제가 돌목마을 재생사업에 제약을 두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돌목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약 69세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돌목마을 주민들의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고령층들의 역할이 핵심이며, 고령자들이 참여 가능한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이 마을재생과 지역자산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로 하다. 지역자산 활용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지역자산과 마을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서로간의 공유,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셋째, 지역자산의 변화 및 소실가능성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자산이 생성될 수 있고, 또한 소멸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역자산의 활용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할 지역자산 선정과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 동의가 필요로 하다. 이는 주민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2) 이왕진 외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설정

기본원칙 설정은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해야한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자산의 발굴 과정에서 인터뷰와 설문내용을 통해 반영된다.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설문을 통해 재확인된 바 있다. 활용 방향에 대한 기본원칙 설정은 비전문가인 동시에 앞으로의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있어서 추후 사업 및 개발에 대한 지표역할을 하며, 주민들 간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기존의 도서지역 재생에 대한 접근방식과 목적은 본 연구의 활용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의 주체인 주민들이 생산자(producer)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물적, 비물적 지원에 의존한 수혜자(beneficiary)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⁵³⁾. 따라서 도서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인식하고 대상지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물리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활용 방식은 도서지역의 긍정적인 요소인 지역자산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을 통해 발굴하고, 이를 유형화 시켜 대상지의 지역자산의 특징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역량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다. 돌목마을의 지역재생을 위한 과정에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자산 활용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돌목마을의 고령화현상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밝혀진 바,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목적 공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자산 활용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지역자산과 마을재생

53) 이왕진 외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자산 적극적 활용을 위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서로 간의 목적의식 공유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마을의 지역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지역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될 수 있고, 소실 될 수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지역 자산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활용할 지역자산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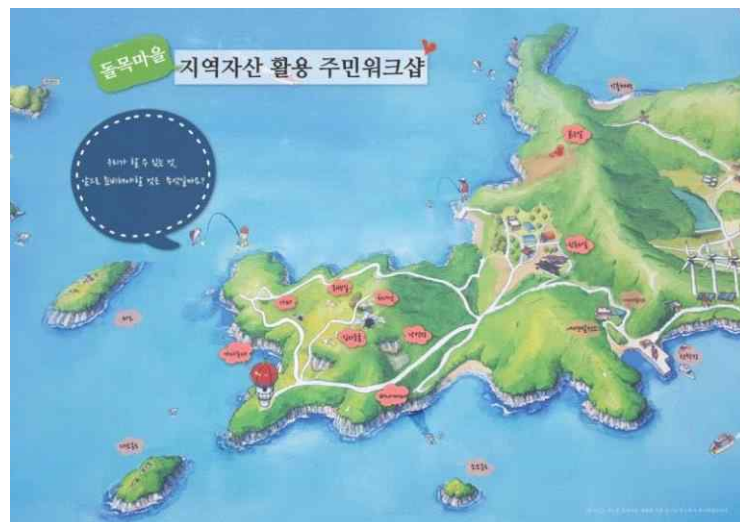
넷째,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은 지역자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자산의 활용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자산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자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 과정은 주민들 간 동의가 필요로 하다. 이는 설문과 주민워크숍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3. 주민워크숍을 통한 활용방안 의견 수립

1) 주민워크숍 준비과정

주민워크숍은 돌목마을 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 진행 순서는 (1)워크숍 목적 및 의의 전달 (2)마을이미지맵 만들기 (3)주민발표 (4)의견교류 후 마을이미지맵 수정 및 완성으로 진행한다. 이미지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관점과 목표의식을 갖게 하며,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이미지맵이라는 도구의 경험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나의 지식습득으로 이어 진다⁵⁴⁾.

이미지맵은 물리적 지역자산의 도면화(mapping)를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민워크숍 목적은 지역자산의 도면화(mapping)와 활용방안(utilization plan)을 동시에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맵 제작과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민워크숍을 통해 진행된다.



[그림 22] 돌목마을 이미지맵

54) 정은정 외(2008), “주민워크숍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국토해양부

주민워크샵은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진행하며, 기본원칙은 주민워크샵 1단계에서 워크샵 목적과 지역자산의 활용에 대한 의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명한다. 마을이미지맵의 기초는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다. 마을이미지맵은 주민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한다. 마을이미지맵 제작은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작과정에서 일차적인 주민들 간 의견수렴을 도모한다. 제작된 마을이미지맵 초안은 각 그룹 대표자의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마을주민들 간 의견교류 과정에서 두 개의 마을이미지맵을 하나로 완성한다.

원활한 워크샵 진행을 위해 A1 크기의 지역자산 지도 3장이 필요로 하였다.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용이한 지도와 폰트 크기가 필요하다. 지도 3장은 A, B조와 최종 지도 완성에 사용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포스트잇, 매직, 볼펜, 스티커 등 주민들이 쉽게 의견을 전달 및 수정 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주민워크샵은 2016년 11월 초에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툿 양식 일정으로 인해 2016년 11월 29일로 연기되었으며 야외에서 진행하였다. 툿 작업은 10월 말부터 2월 까지 밧줄에 툿 뿌리를 심고 바다에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이 시기에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의 모든 주민들은 5명에서 10명 단위의 조를 나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내외에서 품앗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워크샵 일정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돌목마을을 포함한 도서 지역 및 어촌의 연간 일정은 워크샵과 같은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 주민워크숍 진행

주민워크숍은 돌목마을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29일 박OO씨의 집 앞 마당에서 약 75분간 진행되었다. 참여주민은 마을 이장을 포함한 돌목마을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의 진행과정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주민워크숍 진행과정

진행 단계	내용
워크숍 소개 <10:30-10:45>	워크숍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를 전달함.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자산 활용과 주민참여의 중요성 전달을 목적으로 함.
이미지맵 제작 <10:45-11:05>	돌목마을 주민 10명이 두 개의 조로 나누어 마을이미지맵을 제작.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지역자산 활용 방안 수립.
주민발표 <11:05-11:15>	각 그룹 대표자의 발표를 통해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전달.
의견수립 및 완성 <11:15-11:45>	각 이미지맵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 간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자산 활용방안 정리

주민워크숍 소개는 돌목마을 이미지맵 제작에 앞서 워크숍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를 전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에 대한 내용과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이미지맵 제작은 돌목마을 주민 10명을 임의로 두 조로 편성하여 20분간 진행하였다. 마을이미지맵 제작 과정에서 각 조는 지역자산평가도와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민들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주민발표는 각 조의 대표자가 5분간 진행하였다. 제작된

마을이미지맵 초안은 각 그룹 대표자의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조의 활용방안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조별 마을이미지맵 분석내용

과정	A조	B조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문제점 제기 • 대표지역자산 중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 선정 • 방치된 지역자산 보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 구성 • 마을사업 공모 및 정부지원 사업 적극추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고유지명 회복 및 지역자산을 연결한 둘레길 조성 • 선정한 지역자산 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나누어 지역자산 체험 가능 구역을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방치된 지역자산 보수 및 관리로 지역자산 가치 회복 •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가사도의 특성 적극 활용방안 검토 (툇 양식, 불교 관련 테마)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레길에 관련된 스토리 라인 만들기 • 돌목마을 한옥집을 활용해 식사 및 숙박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풍부한 스토리 라인 조성 •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자연둘레길 조성 • 식사 및 숙박시설은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둘레길 체험을 위한 해설사 및 관리 조직 구성 • 방문객이 최소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단계적 둘레길 프로그램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홍보책자 만들기 • 지역자산 둘레길 지도 만들기

(1) A조 지역자산 활용방안

A조는 돌목마을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여 시간에 따라 방문객들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자산과 연계 방안으로 마을 둘레길 만들기를 돌목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계 방안은 단계를 나누어 마을차원에서 준비 및 실천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주민들 간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A조는 돌목마을 방문객입장을 제한하는 외·내부적 문제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문제로는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부족과 관광객 쓰레기 투기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 23] A조 지역자산 활용 발표 사진

“여름되면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십자동굴, 해수욕장, 등대 돌면 할게 없어요. 길이라도 마을 주변으로 이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돌목마을이 활성화 된다면, 제일 중요한건 돌목마을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보고, 쉬고,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사용했었던 길들이 마을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 길들을 복원해서 마을 주변을 뱅 둘러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고, 요즘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돌목마을 부터 다른 마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OO

대표지역자산 중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동안 체험 가능한 지역자산을 구역(zone)을 나누어 구분하였다. 각 구역 중 방치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지역자산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자산의 보수 및 관리를 통해 마을에서 차츰 사라지고 있던 고유지명들을 회복을 하며, 각 지역자산들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레길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구분하여 마을주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방문객들을 위해 돌목마을 주변과 해안을 따라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레길 곳곳에는 팻말 등을 활용하여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돌목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의견이 나왔다.

A조는 각 의견을 통합하여 일일 프로그램을 위해 돌목마을의 구역을 구분하였다. 오전에는 툇 건조, 마을우물 등 마을 내부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섬주민들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 하고, 점심에는 둘레길을 따라 돌목마을의 십자동굴, 처녀강 등 역사·자연자산을 체험 할 수 있게 하였다. 돌목마을 대부분의 역사·자연자산은 해안을 바라보고 있고, 자전거길과 산책길을 나누어 경관을 고려하여 둘레길을 조성한다. 저녁에는 한옥마을의 대표경관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관광객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한 방안은 돌목마을 입장료를 받아 입장료로 환경미화와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른 방안으로는 외부의 음식을 제한하고 마을 내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여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방문객 유치와 청정마을을 위해 해설사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2) B조 지역자산 활용방안

B조는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조직체 구성과 활용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B조가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 구성이다. B조는 조직체 구성이 돌목마을 재생을 위한 핵심요소로 분석하고 조직체가 돌목마을에 대한 홍보, 사업 및 개발 추진을 전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조직시스템 구축 후 돌목마을 지역자산에 대한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자산은 설문에서 도출된 마을 대표지역자산 7곳과 그 외 생태·자연자산 및 역사·문화자산 6곳을 선정하여 이미지맵 제작에 활용 하였다. 또한,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가사도의 특성 적극 활용방안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림 24] B조 지역자산 활용 발표 사진

“가사도는 스님의 옷자락을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죠. 주변 섬들도 모두 불교에 관련된 이름인 만큼 불교에 연관이 많은 섬이에요. 가사도는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생태섬사업이 진행되었다곤 하나, 자연경관이 빼어난 섬들은 많아요. 가사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불교섬이라는 점이에요. 가사도는 살생하면 안 좋다는 전설이 있어 불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뜻을 주민들이 이어왔어요. 따라서 불교를 테마로하여 돌목마을 지역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OO

가사도와 주변 섬들은 모두 불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가사도는 살생하면
벌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 불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영향을
받아, 살생하지 않는 섬이다. 따라서 어업이 발달하지 않고 톳, 미역 등 양식
업이 발달한 이유도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돌
목마을 주민들은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가사도의 특징과 연계하여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토리라인은 돌
목마을의 지역자산과 둘레길로 연결된다. 둘레길은 청정·생태섬에 걸맞게 자
연포장 및 식재가 된 흙길로 조성한다. 둘레길 조성은 과거 돌목마을 주민들
이 다녔던 길을 복원하는 산책길도 포함된다.

대다수의 돌목마을 40~60대 중년층은 톳 양식을 생업으로 삼는다. 반면 거
동이 불편한 노년층 대부분이 무직이다. 따라서 마을 어르신들이 식사와 숙박
시설을 관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돌목마을 홍보책자와
지역자산 둘레길 지도제작을 지역자산 활용의 최종단계로 설정하였다.

(3) 마을주민 의견수렴

워크숍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조의 이미지맵과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
간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정리하였다.

“돌목마을은 생태적, 역사적으로도 값어치가 있잖아. 주변부터 정리하고
가꾸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거. 전혀
아직은 대응책이 없다는 거. 가사도를 통폐합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도 들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우리 마을이 지금 변하는 걸

모르면서 살고 있어. 이런 지역자산이 있어도 우리 아기들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 아냐. 이런 걸 기록해놓는 게 좋겠제. 나중에 애들이 다 알것제.” - 강OO



[그림 25] 주민워크숍 의견수렴 과정 사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주제는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를 주민 스스로 재정의 하는 과정이었다.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워크숍을 통해 돌목마을 주민들은 지역자산이 돌목마을 활성화에 핵심 요소라는 의견과 이러한 지역자산들이 앞으로 변화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워크숍 참여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얻는 데에 성공하였다. 다

음 단계는 주민들이 A, B조가 제시한 내용에서 서로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의 중요도와 시행가능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최종적인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용방안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

과정	활용방안	주체 및 역할
1단계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 구성 • 마을의 대표지역자산 중 활용할 자산 선정 (툇, 십자동굴, 여너매, 배나 깨미, 붉은알, 한옥마을, 생태탐방로, 돌목해변, 방공호, 처녀강) • 마을사업 공모 및 정부지원 사업 위원회를 주체로 적극 추진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 - 마을사업 공모 및 정부 지원사업 추진 - 활용할 지역자산 선정 - 사업 선정 시 활성화 위원회는 운영관리 위원회로 편입
2단계 (시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운영 관리 위원회 편성 • 마을의 방치된 지역자산 보수 및 관리로 지역자산 가치 회복 •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가사도의 특성 활용방안 적극 검토 (툇 양식, 불교 관련 테마) • 일일 추천 프로그램 개발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 - 지역자산 개보수·정비 전문가 및 위원회 - 일일 프로그램 개발 - 지역자산 연계 검토
3단계 (조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도보, 자전거 둘레길 조성 • 가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풍부한 스토리 라인 만들기 • 한옥집을 활용해 식사 및 숙박시설 마련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 - 둘레길 조성 - 식사 및 숙박시설 마련
4단계 (홍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목마을 홍보책자 만들기 (일일 추천 프로그램 포함) • 지역자산 둘레길 지도 만들기 (자전거, 도보 둘레길 지도) • 추 후 가사도 모든 마을로 사업 범위를 확대 	전문가+운영관리 위원회 -홍보책자, 마을지도 제작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활용방안 과정은 준비단계, 시작단계, 조성단계, 홍보 단계 총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마을대표로서 마을 사업 공모 및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단계는 사업계획 승인 후 이루어진다. 기존의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는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로 변경한다. 운영관리 위원회는 마을의 방치된 지역자산을 보수 및 관리하고,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가사도의 톳양식, 불교 관련 테마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일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단계는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도보, 자전거 둘레길 조성한다. 둘레길은 가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스토리 라인을 만든다. 식사와 숙박시설은 한옥마을을 활용한다. 식사 및 숙박시설은 마을에서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관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돌목마을 책자를 만들어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홍보책자는 가사도, 돌목마을에 관한 이야기와 일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방문객을 유치한다. 방문객의 편의와 효과적인 마을소개를 위해 돌목마을, 지역자산, 가사도 역사 등의 이야기가 담긴 둘레길 지도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시 이를 가사도의 모든 마을로 사업 범위를 확대 및 적용한다.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도보, 자전거 둘레길 조성, 홍보책자, 둘레길 지도 만들기 등 마을주민 주체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상담과 도움으로 진행한다.

3절.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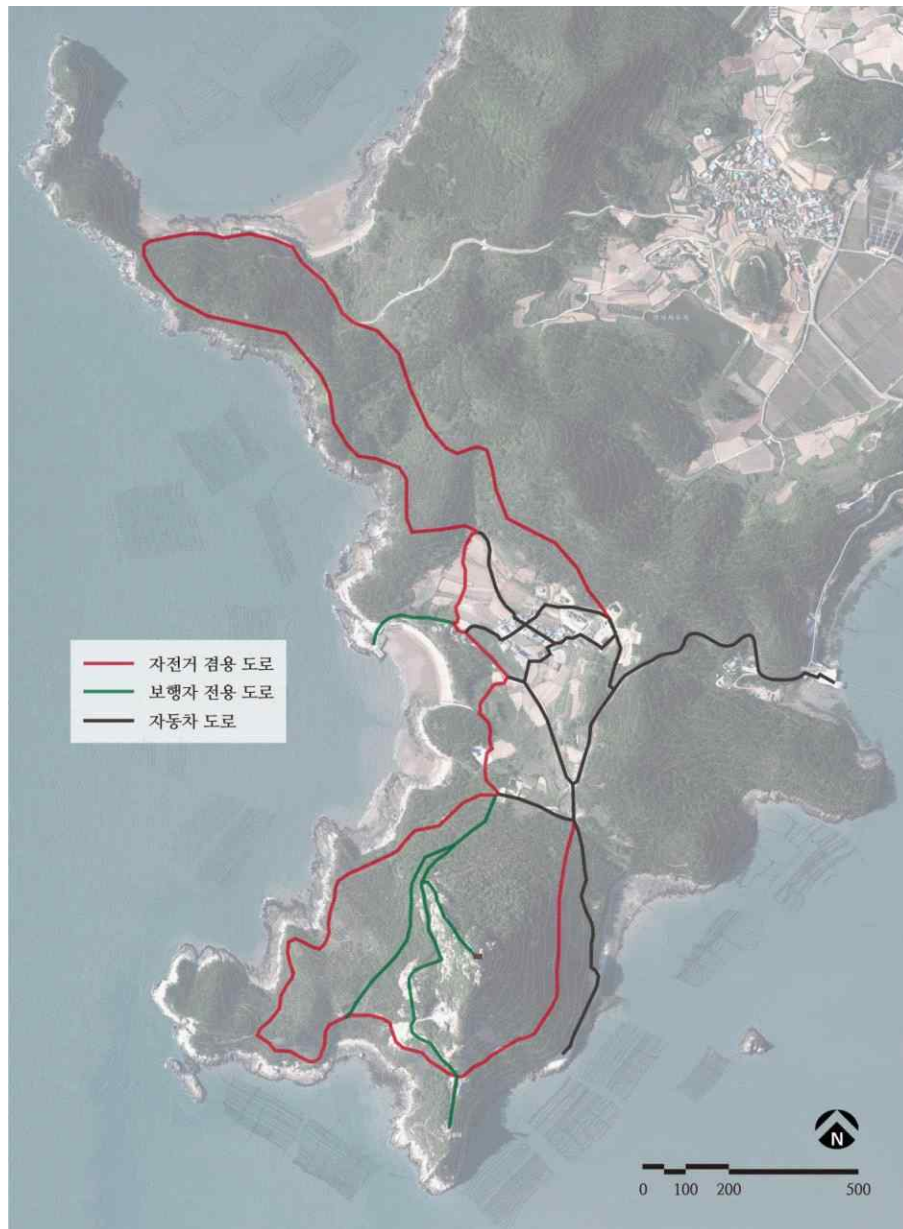
1. 마스터플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설문조사와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주민들과 워크숍진행을 통해 자원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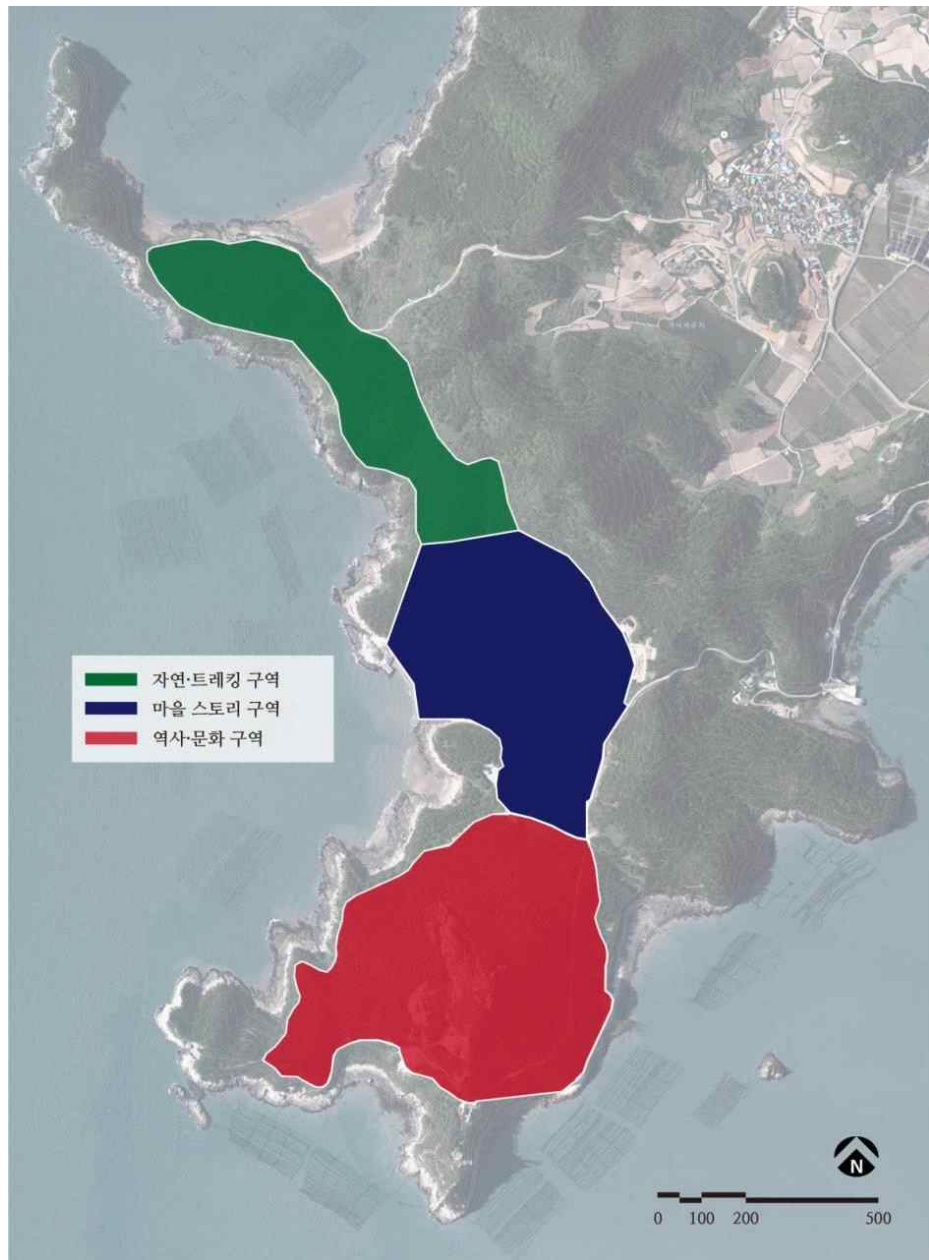
종합계획은 지역자산 활용의 마스터플랜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제시된다. 지역자산 활용을 위해 돌목마을 대표지역자산과 연계로 둘레길을 조성한다. 인터뷰와 주민워크숍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둘레길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소실된 마을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자산과 연계된다. 마스터플랜은 동선계획도와 둘레길 코스 계획도로 구성된다. 동선계획은 자전거 겸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도로로 구분한다. 자전거 겸용도로는 돌목마을 외곽을 순환하며,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도로이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생태섬 사업을 통해 조성된 바 있으며, 일부는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없어진 마을 길 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흙, 돌, 나무, 황토시멘트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생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동차도로는 톳 건조장, 돌목마을, 가사도등대 등 주민들의 생활구역과 필수 기반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청정환경을 유지한다. 둘레길 코스는 크게 생태탐방로, 가사도 역사, 돌목마을 이야기, 해안경관 산책로 총 4가지 코스로 구분한다. 생태탐방로와 해안경관 산책로는 돌목마을의 자연·생태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길을 따라 팻말에 소개된다. 가사도역사 및 돌목마을 이야기코스는 가사도와 돌목마을의 역사·문화자산들이 위치해 있는 코스로서 이정표에 소개되며, 특히 돌목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집집마다 팻말에 소개하여 방문객이 마을주민과 유대감 형성을 돕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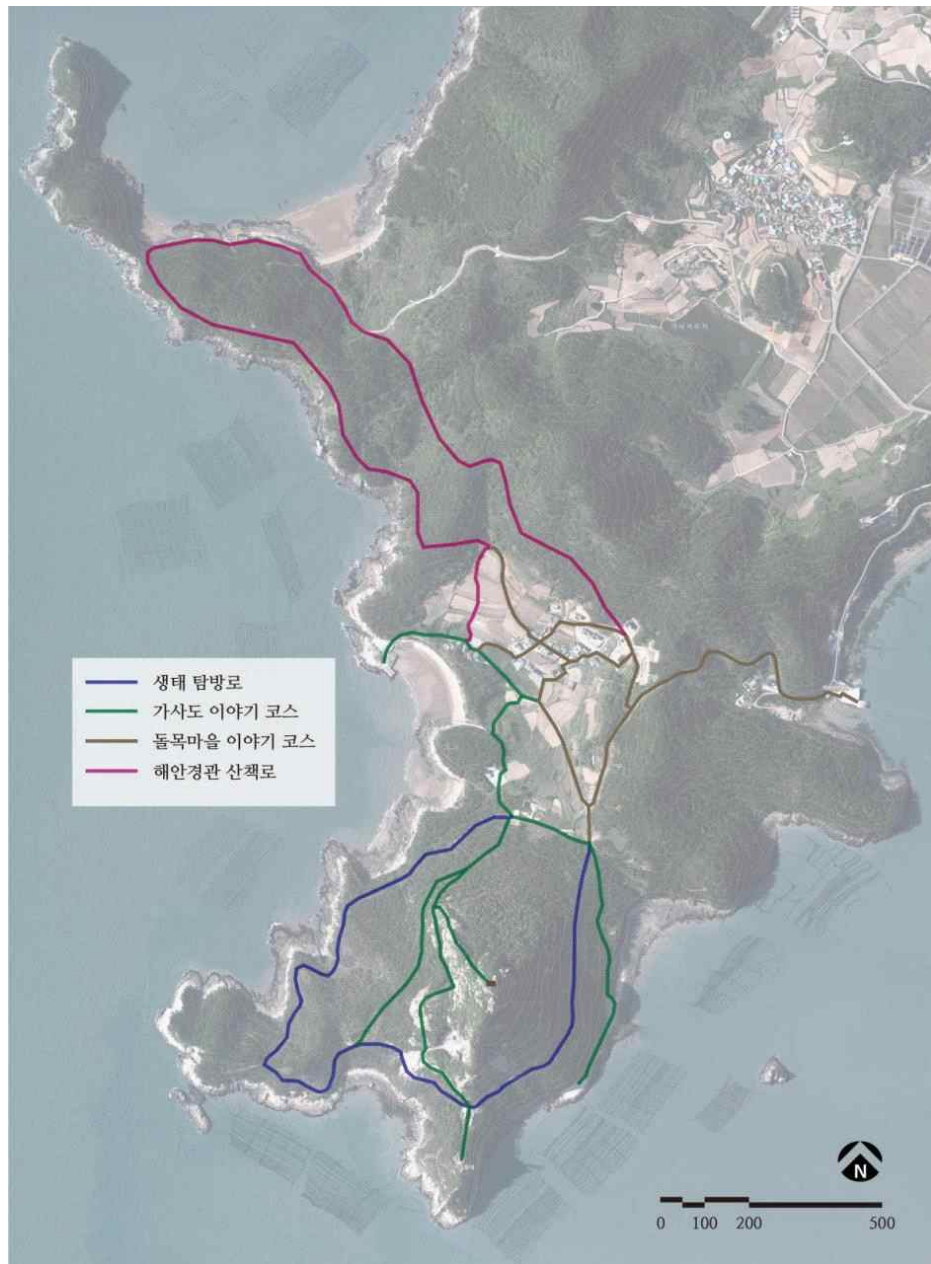
[그림 26] 마스터플랜



[그림 27] 동선 계획도



[그림 28] 구역별 계획도



[그림 29] 둘레길 코스 계획도

2. 지역자산 운영관리 방안

1)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

지역자산은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 및 관리한다. 운영관리위원회는 마을의 이장 및 어촌계장의 업무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나, 각 대표자의 협력으로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마을 구성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 및 어촌계장의 직무와 중복 참여 가능하나 의견 조율시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운영관리는 돌목마을과 주민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자산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회의는 필수적이다. 돌목마을 운영관리는 지역자산 활용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2) 십자동굴

십자동굴은 생태섬 사업으로 십자동굴까지 포장도로가 생겼으나 내부는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다. 주민인터뷰 결과 주민들은 십자동굴을 마을과 작업장을 연결하는 이동통로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주민위크샵을 통해 동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수하여 일제강점기의 광물 수탈의 현장을 담아 돌목마을의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

3) 방공호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공호는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방공호는 군사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그 역할이 모호하다. 그러나 방공호는 가사군도를 마주하고 위치해 있기 때문에 뛰어난 해안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또는 쉼터를 만들어 활용한다.

4) 처녀강

처녀강은 가사도의 전설이 담긴 샘이며,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가사도 테마의 둘레길로 연계가 가능하다. 처녀강은 큰 산의 정상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쉼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5) 가마

가마는 일제강점기 때 고령토를 구웠던 곳으로 십자동굴과 여너매(일본 선착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가마부터 돌목마을까지 이어지는 옛 길을 복원하여 가사도의 역사 코스 둘레길로 활용한다. 가마 자체의 활용보다는 가마에서 일어났던 모습과 광산을 채굴하여 운반되는 과정을 가마 근처에 재현하여 활용한다.

6) 여너매

여너매는 일제강점기 때 가마에서 고령토를 구워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착장이다. 훼손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돌목마을의 역사자산으로 보존 및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여너매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쓰레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 가사도등대

가사도등대는 가사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다. 생태섬사업과 연계로 등대 주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휴식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8) 낙석장

낙석장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낙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산책길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큰 산 정상부터 십자동굴, 낙석장, 배나끼미 까지 광물이 어떤 방법으로 운반되었는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안전관리로 원형을 보존해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9) 툇 건조장

현재는 툇 건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추 후 방문객을 위한 툇 수확과정을 보여주는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한다. 툇 수확과정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돌목마을의 주력 상품인 툇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 배나끼미

배나끼미는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의 역사유산으로 보존 및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 배나끼미는 소소동도 까지 연결하는 바닷길을 만들어 배를 선박하기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광복 후 일본군의 후퇴로 절반정도만 조성된 상황이다. 주민워크샵에서 배나끼미를 훼손하지 않고, 소규모 징검다리를 제작하여 소소동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배나끼미를 보존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징검다리를 만들어 소소동도까지 연결한다. 배나끼미 주변 해안은 수심이 낮아 징검다리 설치에 용이하다. 소소동도는 방문객들이 낚시를 할 수 있게 조성한다.

11) 선착장

선착장은 가사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이자 가사도에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우선 소개하는 중요한 장소다. 따라서 선착장은 돌목마을을 포함한 가사도 마을에 대한 정보와 볼거리,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지역자산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선착장에서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이 배를 기다리기 때문에,

휴식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 책자, 가사도 특산품, 마을지도 등 가사도 홍보 및 판매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선착장은 돌목마을을 포함한 타 마을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사도차원에서 관리 및 운영해야한다.

12) 한옥마을

기존의 한옥마을을 활용해 식사 및 숙박시설을 마련한다. 설문조사와 주민위크숍을 통해 고령자의 생계유지 문제와 마을 발전모금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 바, 한옥마을은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하며 한옥마을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발전과 고령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발전 모금은 해수욕장 유지비용,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13) 돌목해수욕장

돌목해수욕장은 방문객들의 편의 및 샤워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은 무료로 개방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유지비용은 한옥마을 수익금의 일부로 유지된다.

14) 붉은알

붉은알은 과거 돌목마을 주민들의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기능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붉은알은 숲 속에 탁 트인 공간과 완만한 경사로 캠핑 및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따라서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을 통해 옛길을 복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야영시설 및 야외활동 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4절. 소결

본 연구는 지역자산 발굴, 선행연구 고찰,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발굴은 참고문헌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발굴방법은 인터뷰, 도보인터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자산을 분류하고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시설, 잠재적자산 등 36개의 유형자산과 경제, 사회적자산 등 무형자산 5개 총 41개의 지역자산을 발굴하였고, 이를 도면화 하였다. 지역자산의 특성분석을 통해 돌목마을의 역사·문화자산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담긴 자산이나 대부분 방치 및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역사·문화자산은 주민들의 정체성을 담은 자산으로서 외부인을 위한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산은 관리 및 복원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생태자산은 마을주민들의 공간적 지표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이다. 돌목마을 주민들은 자연·생태자산을 마을의 지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자연·생태자산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섬 사업에 활용 된 바 있다. 시설자산은 가사도 등대를 포함해 내연 발전소와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시설자산은 모두 활용되고 있다. 추 후 관광객유치와 마을발전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자산은 모두 방치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추 후 마을발전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안내소 및 입주자를 위한 탁아소 등으로 활용가능하다. 돌목마을의 무형자산은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있으나 툇 문화를 제외한 타 자산들은 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실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의 활용은 설문조사, 기본 활용방향 설정, 주민워크숍을 진행하여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의 미래상과 현재의 돌목마을 이미지를 도출하여 지역자산의 기본 활용방향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24일 8시부터 4시 30분까지 돌목마을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되었다. 대상지는 23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65%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하여데에 의의가 있다. 모든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거나, 문맹일 경우 연구자가 기입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돌목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자산의 상품성, 매력성, 이미지, 미래상 등에 대해 조사하여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남성 5명, 여성 10명으로 남:33.3%, 여:66.6%의 비율이다. 연령대는 40대 1명(6.7%), 50대 4명(26.8%), 60대 1명(6.7%), 70대 4명(26.8%), 80대 4명(26.8%) 90대 1명(6.7%)로 50대, 70대, 80대가 대다수였다. 돌목마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자가 80%로 대다수였으며, 나머지 20%는 5년에서 10년 이하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이 각각 13.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사분면으로 정리하여 평가하였다. x축은 차별성, y축은 상품성으로 구분하여 차별성과 상품성이 모두 나타난 자산과 차별성 또는 상품성이 높게 나타난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선행연구인 농림수산식품부(2011)의 지역자산 평가도를 참고하였다. 돌목마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자산의 가치는 십자동굴(9.39), 배나깨미(9.17), 톳 문화(8.77), 낙석장(8.72), 붉은알(8.60), 여너매(8.50), 가마(8.13)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돌목마을의 대표이미지 설문은 주관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대표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역사·문화자산, 툇, 청정환경,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해안경관, 생태탐방로, 큰산, 돌목해수욕장으로 총 8개의 키워드가 분류되었다. 대표이미지는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문화자산이 9회(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옥에서 보이는 해안경관 5회(19.2%), 툇 양식, 돌목해수욕장 각각 4회(15.4%), 큰산 2회(7.7%), 청정환경, 생태탐방로 각각 1회(3.9%)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한옥마을에서 보이는 해안경관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4명(15.4%)은 모두 한옥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는 한옥마을이 돌목마을 상부에 위치해 있어 돌목마을과 해안경관이 보이는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 통해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의 제약조건과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돌목마을의 제약조건은 첫째, 주민들의 고령화 문제가 돌목마을 재생사업에 제약을 두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돌목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약 69세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고령자들의 역할과 참여 가능한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이 마을재생과 지역자산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로 하다. 지역자산 활용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지역자산과 마을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서로간의 공유,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셋째, 지역자산의 변화 및 소실가능성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자산이 생성될 수 있고, 또한 소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역자산의 활용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할 지역자산 선정과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 동의가 필요로 하다.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설정은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해야한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자산의 발굴 과정에서 인터뷰와 설문내용을 통해 반영된

다.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설문을 통해 재확인된 바 있다. 돌목마을의 지역재생을 위한 과정에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자산 활용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돌목마을의 고령화현상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밝혀진 바,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목적 공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마을의 지역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지역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될 수 있고, 소실 될 수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지역자산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활용할 지역자산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은 지역자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자산의 활용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자산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기본원칙 수립은 앞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기본 활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자산의 제약조건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과정이다. 또한, 기본설정을 수립함으로써 비전문가인 동시에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목표의식을 고양하고, 활용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주민워크숍 소개는 돌목마을 이미지맵 제작에 앞서 워크숍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를 전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에 대한 내용과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이미지맵 제작은 돌목마을 주민 10명을 임의로 두 조로 편성하여 20분간 진행하였다. 마을이미지맵 제작 과정에서 각 조는 지역자산평가도와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민들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활

용방안을 수립하였다. 주민발표는 각 조의 대표자가 5분간 진행하였다. 제작된 마을이미지맵 초안은 각 그룹 대표자의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주제는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를 주민 스스로 재정의 하는 과정이었다.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워크샵을 통해 돌목마을 주민들은 지역자산이 돌목마을 활성화에 핵심 요소라는 의견과 이러한 지역자산들이 앞으로 변화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워크샵 참여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얻는 데에 성공하였다. 다음 단계는 주민들이 A, B조가 제시한 내용에서 서로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의 중요도와 시행가능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최종적인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활용방안 과정은 준비단계, 시작단계, 조성단계, 홍보 단계 총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마을대표로서 마을 사업 공모 및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단계는 사업계획 승인 후 이루어진다. 기존의 돌목마을 활성화 위원회는 돌목마을 운영관리 위원회로 변경한다. 운영관리 위원회는 마을의 방치된 지역자산을 보수 및 관리하고,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연계로 가사도의 톨양식, 불교 관련 테마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일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단계는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도보, 자전거 둘레길 조성한다. 둘레길은 가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스토리 라인을 만든다. 식사와 숙박시설은 한옥마을을 활용한다. 식사 및 숙박시설은 마을에서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관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돌목마을 책자를 만들어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홍보책자는 가사도, 돌목마을에 관한 이야기와 일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방문객을 유치한다. 방문객의 편의와 효과적인 마을소개를 위해

돌목마을, 지역자산, 가사도 역사 등의 이야기가 담긴 둘레길 지도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시 이를 가사도의 모든 마을로 사업 범위를 확대 및 적용한다.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도보, 자전거 둘레길 조성, 홍보책자, 둘레길 지도 만들기 등 마을주민 주체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상담과 도움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 연구는 주민들과 워크샵진행을 통해 자원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은 대표지역자산과 연계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지역발전 방법인 에코뮤지엄, 에코투어리즘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뷰와 주민워크샵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둘레길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소실 된 마을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돌목마을 고유의 역사·문화자산, 생태·자연자산 등을 보전하면서 청정 환경유지, 체험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의 목적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한다.

마스터플랜은 동선계획도와 둘레길 코스 계획도로 구성된다. 동선계획은 자전거 겸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도로로 구분한다. 자전거 겸용도로는 돌목마을을 외곽을 순환하며, 가사군도의 해안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도로이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생태섬 사업을 통해 조성된 바 있으며, 일부는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없어진 마을 길 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흙, 돌, 나무, 황토시멘트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생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동차도로는 톳 건조장, 돌목마을, 가사도등대 등 주민들의 생활 구역과 필수 기반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청정환경을 유지한다. 둘레길 코스는 크게 생태탐방로, 가사도 역사, 돌목마을 이야기, 해안경관 산책로 총 4가지 코스로 구분한다. 생태탐방로와 해안경관 산책로는 돌목마을의 자연·생태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길을 따라 켄말에 소개된다. 가사도역사 및 돌목마을 이야기코스는 가사도와 돌목마을의 역사·문화자산들이 위치해 있는 코스로서 이정표에 소개되며, 특히 돌목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집집마다 켄말에 소

개하여 방문객이 마을주민과 유대감 형성을 돕도록 한다.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돌목마을 주민들은 지역자산이 돌목마을 활성화에 핵심요소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지역자산들이 앞으로 변화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또한 돌목마을 지역자산과 가사도의 특징을 연계하는 것은 돌목마을뿐만 아니라 가사도의 정체성 확립 및 공동체 의식 고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소실 및 방치된 지역자산의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혔다.

[표 24] 돌목마을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 표

구분	방법	결과
지역자산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 도보인터뷰 • 참고문헌 • 선행연구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활용사례 분석 • 유형·무형자산 발굴 • 지역자산 현황 파악 및 기록 • 돌목마을 지역자산의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자산 3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산 - 자연·생태자산 - 시설자산 - 잠재적자산 무형자산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자산 - 사회적자산 • 돌목마을 지역자산 도면화 • 지역자산 특성분석
지역자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활용방향설정 • 주민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지역자산 도출 • 주민들의 마을 미래상 도출 • 돌목마을 대표이미지 도출 • 지역자산 활용의 기본원칙 설정 • 돌목마을 주민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 지도 제작 - 주민발표 - 활용방안 의견 공유 • 지역자산 활용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 마스터플랜 - 지역자산 운영관리 방안

제 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돌목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발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진행하였다. 지역자산의 발굴과 활용은 도서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자산의 발굴과 활용은 전라남도를 포함한 전국의 도서지역 재생사업의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도서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연을 보전하는 동시에 섬 주민들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방향 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민들의 의견 및 역량을 고려하여 추후 도서지역 재생에 관련한 사업이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서지역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돌목마을 41개의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마을의 대표자산을 선별하여 자산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돌목마을의 지역 역량과 활용의 제약조건을 분석하여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워크숍을 통해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마을재생과 지역자산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로 하다. 지역자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자산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자산은 몇 십년간 그대로 방치되거나 일부는 소실되었다. 따라서 지역자산 활용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지역자산과 마을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서로간의 공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마을 고유의

청정 환경 보전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도서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지역 고유의 문화, 역사, 생활방식, 자연환경 즉, 지역자산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지역자산 활용 방안은 큰 맥락에서 에코뮤지엄, 생태관광, 생태박물관 등의 형태로 도서지역의 경제적 재생과 더불어 사회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도서지역의 고령자는 마을의 역사·문화, 지역자산 파악에 핵심 계층이다. 따라서 돌목마을 주민들의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고령층들의 역할이 핵심이며, 고령자들이 참여 가능한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 간 아이디어 공유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역자산의 활용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할 지역자산 선정과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 동의가 필요로 하다. 이는 주민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지역자산 활용에 앞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노령화에 대한 경각심이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인 도서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마을의 노령화 위기와 주민들이 마을재생과 지역자산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목적 공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자산 활용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지역자산과 마을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자산 적극적 활용을 위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서로간의 목적의식 공유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 과정은 오랫동안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조성된 마을과 공동체보다는 오랫동안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지역에

서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산의 활용과 개발방향은 점진적 추진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자산 활용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우선순위 선정은 지역자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주민들 간 충분한 동의가 필요로 하다. 지역자산 활용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돌목마을의 고령화현상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밝혀진 바, 지역자산 활용에 있어서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민들과 워크샵진행을 통해 자원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돌목마을 지역자산 활용방안은 대표지역자산과 연계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지역발전 방법인 에코뮤지엄, 에코투어리즘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세부적인 지역자산 연계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어려우나, 본 연구를 통해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을 세세히 파악하고, 지역자산 발굴과 활용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의미와 단계적 활용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소실 및 방치된 지역자산의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절. 연구의 한계

돌목마을의 지역자산은 2016년 11월 현재까지 41개의 유형·무형자산을 발굴하였으나, 지역자산을 바라보는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자산이 새로이 생겨 날수도,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자산 파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과 주민인터뷰를 기초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정의함으로서 지역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유형화 및 맵핑하여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자산 활용 사업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산 활용방안 모색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산의 상품성과 차별성을 평가한 바 있다. 평가과정에서 주민들이 상품성과 차별성이라는 전문용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각 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하고, 인터뷰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오차의 범위를 좁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자산의 단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자산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둘레길 디자인 등 구체적인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추후 도서지역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참여 및 지역자산 활용과 연계된 사례가 계획될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 과정 및 방법을 고려한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학위논문

- 박수정 (2006). 유희(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선중 (2008).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은성 (2013).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노기창 (2010).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박소연 (2010). 자연친화형 해양관광단지의 계획 요소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배기택 (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백선희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선미 (2011).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 중요도 연구 :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선영 (2016).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양지나 (2016). 생태-현시적 개념을 적용한 폐염전 공원화 설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성운 (2015). 섬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이진의 (2013). IPA기법을 활용한 섬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리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장신영 (2008). 서울 도심 역사·문화 환경의 장소자산적 가치와 기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은찬 (2012). 고군산군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 학회지 및 간행논문

- 김민철, 장희정. (2008.11). “도시의 관광콘텐츠 유형에 따른 관광매력요인.” 관광레저연구 20(4): 123-137
- 김상욱, 김길중 (2010). “적극적 주민참여를 통한 전통문화시설 복원 성공요인 분석 : 전주천 싹다리 놓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93-101.
- 김상훈, 남진. (2016.3). “유희공간 유형별 특성 분석과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45-65.
- 김선명, 정순관, 이수창. (2008.9). “도서개발 효율화를 위한 도서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5-21.
- 김승(2001). “가사도 어촌마을의 지선어장* 이용관리 형태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학회 13(1): 103-131.
- 김연금, 성종상, 조석만, 이규만 (2003).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1): 78-89
- 김연진. (2009.2).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185-207.
- 김영수 (2001). “가사도 지역농업의 입지적 특성 -전남유인도서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학회 13(1): 131-152.
- 김은자, 이유경, 박미정, 최진아, 임창수, 김상범. (2015.10). “농촌마을 유희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22(2), 33-57.
- 김정호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어업하면 망한다는 가사도.” 한국도서학회 13(1): 3-5.
- 김준 (2008). “섬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문화 32: 3-39
- 김하승, 임병선, 이점숙, 박송의 (2003) “가사도 폐염전의 식생 현황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7(2): 123~132.
- 김현철, 정기한 (2014) “통영도서(섬)지역의 생태관광가치, 고객만족, 행동의도 간의 관계연구.” 한국도서학회 26(2): 61-80
- 노봉옥 (2006), “인천지역 해양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웅진군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학회 2(2): 91-111
- 문병채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의 자연 및 인문경관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13(1): 9-22.
- 손호기, 김용수, 김규호 (2007). “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 인식이 개발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 역사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

회 25(3): 106-114.

- 신선미, 변병설 (2012.11).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 : 인천 옹진군 이작도를 중심으로.” 한국습지학회지 14(4): 675-685
- 오성동, 전의천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 산업구조와 주민소득 제고방안.” 한국도서학회 13(1): 31-46.
- 오아연, 이연숙, 김윤수, 박지선 (2016). “취약계층 지원주택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디자인워크샵 의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8(1): 268-271
- 이동신, 김농오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 팔경과 관광개발 방향.” 한국도서학회 13(1): 47-72.
- 이병대, 심재승. (2012.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통한 구도심 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2): 183-206.
- 이윤선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도서적응과 변화에 대한 고찰-당제와 도깨비굿을 중심으로.” 한국도서학회 13(1): 73-102.
- 이재용. (2014.10). “[ZOOM UP_한국전력] 국내 최초 MG 기반 ‘에너지 자립 섬’ 준공.” Electric Power 8(10): 86-86.
- 임순정 외. (2014).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자산 측정도구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30(1): 169-180.
- 임유경. (2015.9). “[도시설계]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유희공간, 현황과 과제. 환경논총.” 56, 58-66.
- 전태갑, 기민정 (2001).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 톳의 생산 및 유통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13(1): 154-169.
- 최진욱, 이주형 (2015). “유희공간의 재생이 주민 삶의 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구조 분석.” 한국컨텐츠학회 16(2): 129-142
- 편집부. (2015.07). “[電력질주]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섬 ‘가사도’.” 전기저널: 74-79.
- 홍선기, 김재은. (2011.12). “서남해 도서자연자원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 도서문화 38: 331-358.
- 홍연, 이상호 (2013). “홍콩 도심재개발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검토.” 한국도시설계학회 4: 510-517

3) 연구보고서

- 국토해양부 (2008),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윤환 (2011),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

생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 도서해양문화연구모임 (2014), 「섬 가꾸기 및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12-2021」
- 문화체육관광부(2008),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2009),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전남발전연구원 (2012),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전라남도
- 정은정 외(2008), 「주민워크숍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국토해양부
- 최덕균 (2011), 「모두가 행복한 서울 관광 만들기: 공정관광」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2008),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환경부 (2014),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 2015~2024」
- 환경부 (2015),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

4)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2012),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한국농어촌공사
- 이왕건 외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5) 인터넷

- 광주매일신문, “가사도 생태섬” 항목, 신문날짜: (2016.02.26. 제 6643호)
- 나오시마 섬 홈페이지 (<http://benesse-artsite.jp/en/>)

해외문헌

1) 논문

- Amoamo, M. (2011). Remoteness and myth making: Tourism development on Pitcairn Island.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8(1), 1-19.
- Board, O. S. (2004). *Analytical Methods and Approaches for Water Resources Project Planning*. National Academies Press.

- Brigand, L., Bioret, F., & Le Démezet, M. (1992). "Landscapes and environments on the island of Ouessant, Brittany, France: from traditional maintenance to the management of abandoned areas." *Environmental Management* 16(5): 613-618.
- Brody, S. D. (2003). "Measuring the effect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on the quality of local pla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llaborative ecosystem management."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2(4): 407-419.
- Joo, D. (2013). Fair trade tourism: Conceptual evolution and potential market projection.
- Florin, P., & Wandersman, A. (1990). "An introduction to citizen participati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Insights for empowerment throug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41-54.
- Flournoy, P. H. (2003). Marine protected areas: tools for sustaining ocean ecosystems. *Journal of International Wildlife Law and Policy*, 6(1-2), 137-142.
- Fior, L. (2012). "Mapping in Hackney Wick and Fish Island: Observation is Proposition. *Architectural Design*," 82(4): 118-121
- Greene, J. G. (1988).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in program evaluation." *Evaluation review* 12(2): 91-116.
- Glicken, J. (2000). "Gett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right' : a discussion of participatory processes and possible pitfall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3(6): 305-310.
- Kessler, B. L. (2004). "Stakeholder participation: A synthesis of current literature." National Marine Protected Areas Cente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4pp.
- Mascia, M. B. (2003). "The human dimension of coral reef marine protected areas: recent social science resear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onservation biology* 17(2): 630-632.
- Reed, M. S. (2008). "Stakeholder particip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Biological conservation* 141(10): 2417-2431.
- Richards, C., Carter, C., & Sherlock, K. (2004). Practical approaches to participation. Macaulay Institute.

- Rossetti, D. F., Valeriano, M. M., & Thales, M. (2007). "An abandoned estuary within Marajó Island: implications for late Quaternary paleogeography of northern Brazil." *Estuaries and Coasts* 30(5): 813-826.
- Shinohara, H. (2009). Mutation of Tianzifang, Taikang Road, Shanghai. In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 "The New Urban Question: Urbanism beyond Neo-Liberalism," Amsterdam/Delft.
- Van de Kerkhof, M., & Wieczorek, A. (2005). "Learning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ransition processes towards sustainability: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2(6): 733-747.
- Zang, R., & Ding, Y. (2009). "Forest recovery on abandoned logging roads in a tropical montane rain forest of Hainan Island, China." *Acta Oecologica* 35(3): 462-470.
- Zimmerman, M. A., & Rappa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50.

부록: <돌목마을 지역자산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잠깐이나마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 진입니다.

현재 ‘주민참여를 통한 도서지역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 중입니다.

본 설문은 가사도 돌목마을 지역자산 평가를 위한 설문입니다.

학문적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김 진

☐ 연락처: 010-7447-2925

☐ 이메일: rlawls0517@snu.ac.kr

☐ 설문자 성함: _____

☐ 거주 주소: _____

[돌목마을의 지역자산 평가]

자산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1점: 약함 10점: 뚜렷함)

- ✓ **상품성:** 자원의 매력도가 높으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 ✓ **차별성:** 타 마을과 비교해 지역성이 강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

번호	자산 이름	상품성	차별성
1	제조판		
2	화약고		
3	방공호		
4	십자동굴		
5	가마		
6	여너매		
7	최순례 할머니댁 (옛 파출소)		
8	꽃잔디		
9	배나깨미		
10	붉은알		
11	마을우물		
12	처녀강		
13	동백나무길		
14	생태탐방로		
15	해안산책길		
16	돌목해수욕장		
17	각홀 해변		
18	한옥마을		
19	낙석장		
20	채석장		
21	가사도등대		
22	에너지발전소		
23	빈 집, 창고		
24	툇 문화		
25	청년회		

[돌목마을의 미래상]

1. 우리마을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2. 미래의 우리마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3. 돌목마을 발전사업에 함께 동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기본 정보]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3. 돌목마을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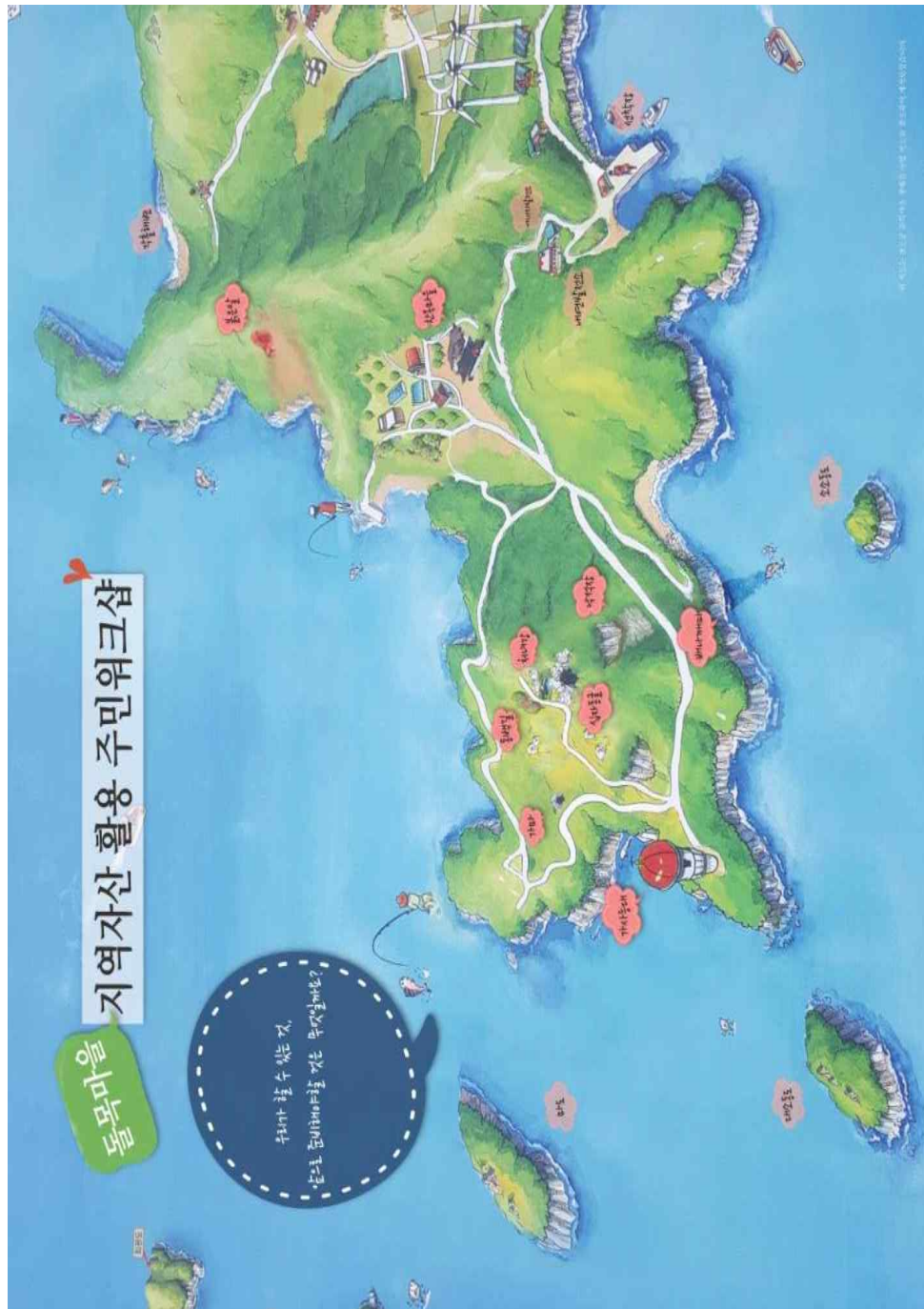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이상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3. 월 소득

①100만원 이하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만원 이상

부록: <돌목마을 마을이미지맵>



A Study on Search for Value and Utilization Plan for Regional Asset in Island Area through Neighborhood Participation

: Focusing on Dolmok Village in Kasa Island, Jindo-gun

Jin Kim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ongsang Sung

Island areas of Korea are given a lower priority of institutional benefits regarding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cause of geographically unfavorable environmental reasons. Island area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circlement by the sea, isolation and confinement since it is entirely surrounded by waters with distance from the inland⁵⁵⁾. Because of these reasons, most island areas show regional underdevelopment. Therefore, there are relatively much underused space, however distinct measures or new attempts for reaction are not much shown. Therefore, searching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s urgently needed. However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the environment are getting worse proportional to the aging of the town and the residents. At this point, the application plan of regional asset can affect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influence not only the environment of the island areas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even their future.

The regional asset reflects the sense of place that have history and culture of inhabitants⁵⁶⁾. Th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essential in order to draw a

55) Sundong Oh, Euicheon Jun (2001). "The Method for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Sturcture and Inhabitant's Income in KASA-DO." The Korean Association of Island 13(1) 31-46

56) Kim, Youn Jin. (2009.2). "A Study on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Idle Space Revitalizatio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1: 185-207.

utilization plan for regional asset in islands⁵⁷⁾. It is a key to solve how can utilize and regenerate the abandoned space by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the meaning of neighborhood participation in island,

rediscover the value and draw the utilization plan through neighborhood participation.

The study is proceeded by four steps. First, document research and case study are used in order to draw the application plan and historical・cultural characteristics of Dolmok Village. The interview with Dolmok villagers is processed to discover the regional asset and classify these factors. Second, draw representative regional assets by regional asset measurement tool and set a direction of development plan of the village. Third, make a image map through residents workshop and draw a development plan. Lastly, based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propose a utilization plan for regional asset in Kasa Island. By rediscovering the value of regional asset in island, the study has potential to support the current national island regeneration projects more effectively.

■ Keywords : community regeneration, island village, idle space, neighborhood workshop, historical culture resource

■ Student ID No. : 2015-24841

57) Mascia, M. B. (2003). "The human dimension of coral reef marine protected areas: recent social science resear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onservation biology* 17(2): 630-632.